

미 최대 한인 의료기업 '서울메디칼그룹' 대표 차민영 동문
(의대 76)

“환자 최우선 주의가 성공의 원천”

의료 시스템 변화로 환자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건강의학, 진단의학, 치료의학' 이 3가지 의학 철학으로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의사, 또한 서울 메디칼 그룹의 대표로 두 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과 전문의 Dr. 차민영에 대해 알아보자.

의사하면 의학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존재감 만으로도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차민영 박사는 좀 다르게 느껴진다. 상대방을 편안하고 항상 친절하게 긍정적으로 대해준다. 당차고 활기찬 모습으로 서울 메디칼 그룹을 이끌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서울대인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운 동문, 차민영 박사는 서울대 후배 동문들에게도

미주 사회에서 서울대를 알리고 활성화 시키는데도 크게 공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1993년에 설립된 한인 최고의 메디칼 그룹인 서울 메디칼 그룹은 환자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돈과 시간 낭비하는 상황을 볼 수 없었던 차민영 박사가 전문의에게 신속하게 리퍼럴을 해주고 환자들이 필요할때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

<4면에 계속>

- 2020 스페셜 이벤트 - 3.1절 101주년 특집

“대한민국의 법적 정통성은 3.1운동과 이 운동으로 생겨난 임시정부로부터 나온다.” 라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떠올려 본다. 임시정부를 이끌던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이 문화대국이 될 것을 염원했다. 그 염원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스카상'의 작품상과 감독상은 모두 한국영화 '기생충'이 휩쓸고 BTS가 전설의 반열에 올랐다. 지금 전세계인들은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다. 우리의 정신과 문화가 세계 문화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백년전, 그리고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애국선열들의 민족에 대한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들의 고귀한 정신으로 오늘날 문화대국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창회에서는 대한민국의 3.1운동 101주년을 기념하며 세계적 위상에 걸맞는 국민성과 시민의식이 태동하기를 소망하며 동문들의 뜻과 의를 전하는 귀한 글을 모아서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하려고 한다.

<칼럼 3/16/17면>

추
등
록

제 29차 평의원회의 버뮤다 크루즈 소통 / 화합 / 비전

2020/6/25(목)~6/29(월)

추가신청 3월25일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윤기향 (법대 65)

/ 경제칼럼 /

애플 ‘1조달러 클럽’ 신화의 탄생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국을 다시 한 번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들의 표심을 노렸다. 그러한 구호가 먹혀들었는지 그는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말(rhetoric)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MAGA로 대표되고 있는 IT 공룡 기업들이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애플(Apple), 구글(Google), 그리고 아마존(Amazon)이다. 이들의 첫 머리 글자를 따서 흔히 이들을 MAGA로 부른다. 이들 IT기업들은 그 동안 천정부지로 올라간 주가 덕분에 그들의 기업가치(주식의 시장가치)가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위업을 달성했다. '1조달러 클럽'의 탄생이다.

애플은 2018년 8월에 민간 기업으로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시총)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그 뒤를 이어 마이크로소프트가 2019년 4월에 이 고지에 올라섰으며 구글은 2020년 1월 16일 '1조달러 클럽'에 합류했다. 아마존은 2019년 7월 장중 한 때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이기도 했으나 '1조달러 클럽' 진입에 실패했다. 그러다가 2020년 2월 4일 드디어 '1조달러 클럽'의 회원이 되었다.

이로써 미국의 4개의 MAGA 기업들이 처음으로 한꺼번에 '1조달러 클럽'의 회원이 되었다. 이들 MAGA 기업들의 주가는 '1조달러 클럽' 진입 이후에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 그들의 시장가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20년 2월 5일 현재 이들 기업들의 시장가치는 애플이 1조 4,06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3,850억 달러, 구글이 1조140억 달러, 그리고 아마존이 1조18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대표적인 아시아 기업들의 시장가치와 비교해 보아도 이들 MAGA 기업들의 위세를 실감할 수 있다. 아시아 기업들 가운데 시장가치(2019년 12월 20일 현재)가 가장 큰 기업은 마윈이 일으킨 알리바바이다. 알리바바의 시장가치는 5,7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중국의 텐센트가 그 뒤를 이어 4,59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전자가 3,200억 달러로 3

위를 유지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800여개 기업의 시장가치를 다 합쳐도 애플의 시장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코스피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은 2019년 12월 9일 현재 1조1,930억 달러(1달러 당 1,160원 적용)에 머무르고 있다.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GDP(국내총생산)가 1조 달러를 넘는 나라들



은 2019년 말 현재 16개 나라밖에 없다. 애플을 국가에 포함시키면 경제 규모 세계 12위인 한국(1조6300억 달러)에 바로 뒤 이어 세계 제13위인 경제대국이 된다.

애플은 현대판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 지금 빨간 사과(애플)가 맛의 향연을 벌이고 있다. 사과는 과일 가운데 으뜸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업가치 1조 달러를 달성한 애플이 한 입 물린 빨간 사과를 로고로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인류 역사상 아담이 최초로 먹었던 과일도 사과였다. 사과는 고대 희랍과 로마 신화에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종교 문헌에도 많이 언급된다. 사과와 관련된 희랍 신화 가운데 황금사과가 트로이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백미일 것이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Eris)는 펠레우스(Peleus)와 테티스(Thetis)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앙심을 품는다. '아킬레스의 발꿈치(Achilles' heel)로 유명한 아킬레스는 펠레우스와 테티스 사이에 태어났다.) 그에 대한 보복으

로 에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위하여(For the most beautiful one)라는 문구가 새겨진 황금사과를 결혼식 피로연 장으로 던진다. 세 명의 여인들이 그 황금사과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이들 세 명의 여인들은 제우스신의 아내인 헤라(Hera), 지혜의 여신인 아테네(Athene), 그리고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

프로디테(Aphrodite)였다. 트로이의 왕 파리스(Paris)가 황금사과의 소유자를 결정하는 심판을 맡았다. 헤라와 아테네는 뇌물을 주고 파리스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렌(Helen)으로 하여금 파리스를 유혹하도록 했다. 헬렌은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Menelaus)의 왕비였다. 결국 파리스왕은 그 황금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주었고 이런 과정에서 파리스는 헬렌을 빼앗았다. 이것이 트로이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아무튼 최초 인류가 먹은 과일이 사과라는 사실은 흥미롭다. 인류 역사상 기업의 시장가치가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어선 애플이 한 입 물린 사과를 기업 로고로 선택했다는 것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일까? 애플은 1976년4월 잡스(Steve Jobs), 워즈니악(Steve Wozniak), 그리고 웨인(Ronald Wayne) 세 사람에게 의해서 캘리포니아 쿠파티노에서 설립되었다. 잡스는 인류의 생활방식을 잡스 이전(Before Jobs)과 잡스 이후(After Jobs)로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영국 BBC에 기고하고 있는 라일리(Alex Riley)는 애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런던의 코벤트 가든에 새로이 문을 연 애플스토어의 개장식에서 내가 목격한 광경들은 전화기나 컴퓨터를 사려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순복음교인들의 기도모임과도 같았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폰, 아이폰을 통해서 애플문화, 애플종교를 창출해낸 것이다. 애플은 브랜드를 통해서 애플을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애플 매니아(Apple mania)층을 만들었고 그 층은 점점 두터워지고 있다. 애플은 분명 현대판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다.

정복할 수 있었다. 이로써 길고 지루했던 트로이전쟁도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현대판 황금사과로 볼 수 있는 애플은 아이폰을 세상에 소개함으로써 이제는 트로이목마와 같은 전술을 사용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에덴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에덴동산의 금지된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성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기독교의 오래된 전통은 그것을 사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증거들이 있다. 남자들 앞 목의 중간에 튀어나온 부분(결후)을 '아담의 사과(Adam's apple)라고 한다. 이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데 대한 벌로서 사과의 씨앗이 목에 걸려 결후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또 뒤러(Albrecht Durer)가 1507년에 그린 '아담과 이브'라는 그림에는 아담과 이브가 각각 손에 사과를 들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 책이 출간 되기전 조선에 대한 외국인 저서를 보면, 그리피스(W.E. Griffis)의 "은자의 나라" [Corea; The Hermit Nation, 1882]와 헨리 세비지 랜더(A. Henry Savage Lander)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1895] 등이다. 이 책들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심성과 문화를 함축하는 문구로 회자되었다.

3.1 운동 이후,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조선시대 유학과 그 폐습으로 인해 조선이 식민지, 문명의 낙오자가 되었으니, 우리 한국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왔



신용남 회장(농대 70)

Presidential Corner

3.1절 즈음..도루의<조선인>을 다시 읽다

지금부터 백년 전 조선총독부는, 1910 경술년 한일 합방 후 강압적 무력으로 통치하던 조선 식민지 정책을, 3.1 운동 발발한 후, 어떤 지배 형태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조선 총독부는, 당시 한국 문학을 연구하던 다카하시 도루의 논문 <조선인>을 1921년 발간하여 식민지 통치의 자료로 삼았다. 동 단행본은 조선의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조선인의 특성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19세기 말 전후로 외국 선교사의 기행 방문기는 있었으나, 조선의 사회 역사 문화 및 종교 분야를 두루 연구하고 쓴 책은 도루의 책 <조선인>이 유일했다.

다카하시 도루가 지적하는 조선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공사구분이 안되며, 형식주의, 당파성이 심해 많다고 지적했으며, 그외에 문학함, 심미적인 안목이 없으며, 사상의 중속성을 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용과 위엄, 순종, 낙천성 세가지는 조선인의 아름다운 자질이라고 기술했다.

그 책이 출간 되기전 조선에 대한 외국인 저서를 보면, 그리피스(W.E. Griffis)의 "은자의 나라" [Corea; The Hermit Nation, 1882]와 헨리 세비지 랜더(A. Henry Savage Lander)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1895] 등이다. 이 책들은 오랫동안 한국인의 심성과 문화를 함축하는 문구로 회자되었다.

3.1 운동 이후,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조선시대 유학과 그 폐습으로 인해 조선이 식민지, 문명의 낙오자가 되었으니,

조선인 스스로 민족성을 개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했다.

춘원 이광수는 [개벽]지에 발표한 그의 논설문 [민족개조론, 1922]에서 조선 시대에 형성된 1) 거짓 2) 나태 3) 이기심 등의 부정적인 민족성을 버리고, 오랜 미덕으로 자리잡은 4) 관대함 5) 금욕 6) 예의와 같은 민족성을 지니도록 개조하자는 주장을 폈다. 춘원의 주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도루의 주장과 어느정도 일치한다.

19세기 말 전후로 외국 선교사의 기행 방문기는 있었으나, 조선의 사회 역사 문화 및 종교 분야를 두루 연구하고 쓴 책은 도루의 책 <조선인>이 유일했다.

이러한 [혹속에 저 바람속에서,1972] 우리의 말과 글 중의 '나' 와 '우리' 를 혼동하는 현상을 통해 자아관념의 부재 그리고 전통 한복의 비능률성을 통해 허례허식을, 윗돌이를 통해 조선시대 당쟁을 워어내고 비평했다.

비교적 최근에 전북대 교수인 강준만은 그의 저서 [한국인의 코드, 2006]에서 냉소주의, 추종 주의, 관중민비와 출세서열주의, 가족 정실주의와 부정부패 등 한국인이 고쳐야할 민족성을 정의했다.

그 저서가 발간된지 100여년이 지난 지금, 식민사관에 의한 불순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비난과 일본의 조선 지배의 영속성을 위한 정치적인 의도에 분노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 조선 민족성에 대한 객관성을 외면한 상황에 머물러 온 감이 있다.

우리 한국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왔

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는지의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다카하시 도루나 외국인 학자의 연구내용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해방후 75년이 지난 오늘, 다카하시의 [조선인]을 다시 읽는 이유는, 우리 한국인 스스로를 바라보고 자기 민족성 개혁의 주장들을 숙고하려 한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할지를 깊이 성찰해야 하며, 민족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 관계를 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회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 분단, 남한의 정치형태의 극한 이념 대치는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개인 연소득 3만 불의 시대, 경제 규모 12위의 나라, 전후 폐허에서 기적의 일군 성공적인 경제성장 모델의 국가 대한민국은 문제는 무엇이며 오늘날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타인들의 객관적 연구와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해야 한다. 민족성을 개조, 개혁해 나가는 노력을 함으로써, 지구상에 새로운 한민족 문명을 세워나가야 하며, 궁극에는, 어느 문화에도 뒤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문명국가를 만들어 나가기를 염원한다.

지정학적으로, 이웃의 침략의 역사로 조공과 식민지 시대를 살아온 불안한 역사 속에서 형성된 한민족 특성을 이제는 개

조할 때가 되었음을 모두 인정해야겠다.

인류 문명을 리드해 온 민족들이 견지한 국민성을 살펴봄과 한민족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들 엘리트 층에 내재하고 있는 특성은 역사성, 도덕성, 단합성, 희생성과 후계성이다. 위의 특성은 오랫동안 그들의 생활속에 배어있는 즉, 삶 속에서 보고 느끼며 배우고 부모세대들을 통해 전수되어온 거룩한 유산인 것이다.

역사를 보면 어느 공동체이나 그 시대를 밝히는 소수의 선각자가 있었다. 19세기 초말로서 나폴레옹에 패한후, 독일 베를린에서 요한 피히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향"의 강연을 통해, 공동체 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몰입했던 이기심을 지양하고, 독일인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 절망감에 빠져있던 독일민족의 재건운동에 앞장섰다.

또한 우리 서울대인에게는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하라, 민족의 위대한 상속자 아~ 길이 빛날 서울대학교" 라는,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책무를 일깨우는 민족적 요구가 있다.

한민족의 좋은 속성과 서구 문명사회를 이룬 우수한 특성을 지금 우리가 열심으로 실천해 봄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한민족의 훌륭한 유산을 물려 주자. 이러한 특성을 내재한 내일의 한민족에게는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갈등 해소의 매듭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해본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org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동 · 창 · 회 · 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사람, 사람들 /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인 건강 지킬 것”

차민영 박사 (의대 76/ 서울메디칼 그룹 대표)



환자를 주치의가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필요시 전문의(SPCP)에 리퍼럴(진료요청 및 추천)을 하면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필 수가 있다. 중요한 진료 일정과 필요한 투약 알림, 별도 과정 생

들이 있으며 가장 빠르게 리퍼럴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라고 말한다. 2019 - 2020년 미국 의사 그룹인 APG(America's Physician Groups)의 이사회 멤버로 선정되어 인정받아 향후 APG 이

고 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LA 정부로부터 커뮤니티 공로상, 신뢰받는 메디칼 그룹 상과 훌륭한 의사에게 주어지는 상 등 많은 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서울대 동창회에서는 발전에 기여한 공로상을 받았다.

Q 의사로서 보람된 일은

A 병은 키울수록 심각해진다. 저의 신념은 항상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에 건강검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병은 예방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클리닉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비용 문제로 형편이 어려워 선뜻 건강 검진을 위해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차민영 박사 본인의 삶과 꿈에 대해 더 알아보자.

Q 미국에 오신 계기는

A 의학 공부를 위해 왔습니다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많이 다르고 외국인과의 체질, 생활 습관이 크게 다른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외국인들보다 한국인들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외국인에게 드문 위암은 미국의 가이드라인으로는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을 만들고 한인들을 위해 치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26년 전만해도 다른 메디칼 그룹에서는 리퍼가 매우 힘들다고 느꼈기 때문에 서울 메디칼 만들어서 리퍼를 빨리 받도록 해주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엑스레이, 피검사, 초음파 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혜택을 받기 위해선 미국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쉽게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비용 문제로 병을 키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서울 메디칼 그룹은 환자의 병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예방 차원에서 복부 초음파 등 미국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검사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기다리지 않고 검사하셨던 많은 환자 분들이 심각한 암으로 발전되기 전에 치료하셨던 경우를 볼 때 정말 내가 의사가 된 건 세상에서 가장 잘 한 일이나 하

타인종과 다른 체질 ‘한인’을 위한 시스템 걸감

신속한 전문의 리퍼럴·승인·종합검사 최대장점

한인 시니어·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혜택 약속

략 등 어떤 응급실도 즉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사회 멤버의 일원으로서 미국 의료 제도가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 예정에 있다.

차민영 박사는 의료 전문인들이 IPA 가입 자격 및 전문의 리퍼럴(referral 승인 신청) 등을 심사하는 풀 서비스 헬스케어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회사(IPA 그룹들을 통한 관리)인 '어드밴스드 메디칼 매니지먼트'(Advanced Medical Management) 즉 AMM이라는 하는 회사를 인수하여 서울 메디칼 그룹이 많은 의료진

차민영 박사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한인 사회, 나아가 미주 주류사회에도 후원 및 지원 활동을 아끼지 않고 있다. American Red Cross, Happy Village 등 다수의 비영리 단체에 이재민 성금 및 병원비 지급이 어려운 환우 가족에게 후원, 시니어들을 위해 건강 박람회, 호도 콘서트, 시니어 보험 설명회 등 많은 봉사 활동을 하



한인 커뮤니티 건강 박람회에서 강연하는 차민영 박사.



메디칼 그룹 주최 전영록 콘서트.

/ 특집 칼럼 /

‘희생’과 ‘보은’의 한미동맹



송웅길 (신문대학원 69)

올해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을 맞는다.

유엔은 북한의 남침 이틀 뒤인 1950년 6월 27일 '대한민국이 무력 침략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유엔 회원국에 권고한다'는 참전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16개국 193만8330명의 병사들이 평생 들어본 적도 없던 나라 땅을 밟았다가 그중 4만670명은 전사하고 10만4280명이 부상을 당했다. 5개 나라는 의료지원단을 보냈다.

쟁과 정권파벌쟁투로 국민여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부자나라에서 방위비 분담금증액은 당연하다는 미대통령의 엄포가 어떤 의도에서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소위 재야구실을 하고 있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런 안보상황이면 대한민국이 곧 망할 것 같은 절망감마저 배제할 수 없다. 나라의 안위를 우려하는 논자들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국민이 위기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데 있다. 위기인식이 없는데 위기관리가 있을 리 없고, 위기관리의 훈련이 공백상태에서 그 능력이 길러질 리 만무다. 세계가 자국이 의중심의 신고립 경제위주 정책으로 향하는 지금 우리사회 전반에서는 개인이 이익주의 포퓰리즘선봉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 추세라지만 일자리가 부족하다해서 보상대책이 우선이어서는 곤란하다. 더불어 정부사회개혁의 직접 창출노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난관극복에 대한 우리 젊은 세대의 희생감수의식이 절실해야 한다. 한국전쟁당시 대다수 희생자가 미국의 젊은 세대였다. 입장을 바꾸어 희생은 커녕 보상만 기대하는 요즘의 우리 젊은 세대였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더 이상 우리 국격을 우리국화 무궁화오양, 피고 지고 또 피는 고통과 환란의 역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한다. 대한민국은 고귀한 선열의 희생정신아래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오늘의 국격을 이룩했다.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줄 나라라는 유일한 동맹국 미국 뿐이다. 또 세계최강 미국을 살아가는 미주동포 대다수는 한미동맹역사의 주인공이다.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둔다는 경자년을 맞아 우리는 대박소망으로 덕담을 주고받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입법제정, 행정수행, 사법집행을 불문하여 결코 책임질 수 없는 논



서울 메디칼 그룹 건물

고 보람을 느낀다.

Q 서울 메디칼 그룹의 장점

A 현재 남가주와 북가주에서 한인 최대의 메디칼 그룹으로 성장하여 주치의 305명, 전문의는 3160명이 소속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LA 와 OC 지역, 사우스 베이, 산타 클라라, 워싱턴주의 시애틀, 애들란타의 조지아, 뉴저지와 버지니아, 뉴욕, 또한 하와이 등 미주 전 지역에 많은 최고의 한인외사와 외국인 의사들이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다.



LA 정부로부터 받은 공로패

다양한 헬스플랜들과 계약이 되어 있어 환자분들이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누리실 수 있고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검사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빠른 리퍼럴은 서울 메디칼 그룹의 최고의 장점이다.

Q 앞으로 미래의 꿈은

제 직업이 의사이지만 의사이기에 앞서 저도 곧 시니어가 된다. 내 몸이 다할 때까지 저의 의사 철학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고 싶다.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판으로 서울 메디칼 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는 생각이 크다. 계속 봉사하는 맘으로 많은 시니어분들과 한인분들을 위해 건강 지킴이로 살것이다.



서울대총동창회 감사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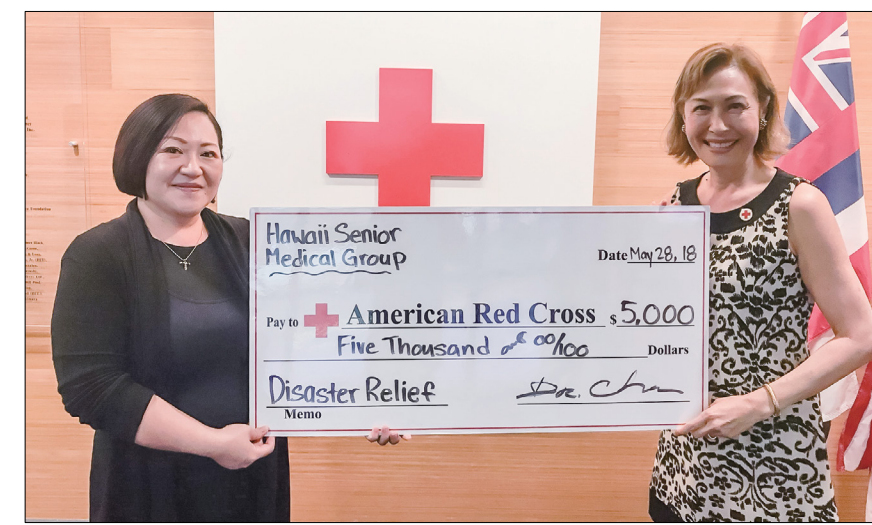
Q 서울 메디칼 그룹과 연계된 메디케어 보험을 소개한다면

- ▲앤덤 블루 크로스(Anthem Blue Cross)
- ▲휴마나(Humana)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HealthCare) ▲웰케어(Wellcare)
- ▲센트랄 헬스(Central Health Medicare Plan) ▲헬스넷(Health Net) ▲블루 실드 프라미스 헬스 플랜(Blue Shield / Prom-

Q 차민영 박사 약력

-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 USC 의대 내과 인턴, 레지던트 수료
- 전 USC 의대 내과 임상교수
- 현 미국 내과 보드 전문의 (Board of Certified in Internal Medicine)
- 2014년도 남가주 한인외사 협회 회장
- 서울대 의과대학 동창회 부회장
- 현 서울 메디칼그룹 회장

<글 : 백옥자 조직국장 >



하와이 지부에서 적십자에 구호금 지원



조지아지부 총회... 예산의결·장학금 시상식 등

서울대 조지아지부(회장 이영진)는 지난 9일 둘루스에 있는 카페 커피 킹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창회와 골프, 합창단, 장학 등 각 사업 2019년 활동 보고, 2020년 사업 보고, 2019년 재정 결산, 2020년 예산 심의 및 의결 등을 진행했다. 또 올해부터 봄과 가을 야유회를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개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올해의 봄야유회는 5월2일(토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5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고등학생에서는 서재훈(부: 서동준 동문), 이재민(조부: 이흥렬 동문) 씨와 대

학부에서는 김선영(모: 최화진 동문), 박인애(부모: 박근우/박난영) 그리고 동문으로 이어 이경철 동문의 2020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거래에 있어 알아야 할 사항'이란 주제로 강연이 있었으며 동문들의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결 등을 진행했다. 또 올해부터 봄과 가을 야유회를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개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올해의 봄야유회는 5월2일(토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5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고등학생에서는 서재훈(부: 서동준 동문), 이재민(조부: 이흥렬 동문) 씨와 대

주재현 동문 자녀 캔디스 해링턴 밀켄 교육자상 영예

주재현 동문(공대 55)의 딸로 캘리포니아 Capistrano Valley High School 에서 수학교사로 재직중인 Candice Harrington이 수학 과목에서 혁신적인 교육법으로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도를 달성한 공로로 밀켄 교육자 상을 수상했다. 또한 상패와 함께 25,000달러의 상금이 주어졌다.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밀켄 패밀리 재단이 운영하는 밀켄 에듀케이터 어워드는 '교직의 오스카' 상으로 불리며, 교직에서 소리가 없이 봉사하고 있는 최고의 교육자들에게 현금과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속적인 교류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석 부사장 제인 폴리 박사는 "그녀의 뛰어난 지도력과 교육적 헌신은 우리가 밀켄 교육자들에게서 추구하는 모범적인 리더십이다." 이라고 그녀를 지지했다.



회계법인 AAMKO 대표 강신용 동문 "AI시대, 세금보고 더 투명하게 해야"

"IT기술발전으로 AI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금 보고는 보다 더 간간해졌지요. 아니면 더 투명해졌다고 해야겠습니다." 미주 대표 회계법인 AAMKO의 강신용 대표(사대 73)는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한인들의 세금보고와 관련해 몇가지 사항을 공개했다. 특히 IT기술의 발달로 변화된 세금보고 풍경에 대해 지적했다. 강 대표는 "9.11을 계기로 세무당국이 현금 거래에 주목하면서 리커나 마켓 등 한인타운의 체크캐시업체가 거의 문을 닫았다"며 "현금 3000달러는 마치 예전의 1만달러 거래쯤으로 보는 것 같다. 이제는 오히려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려돼 국제세정의 허무도 이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부분까지 손을 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AI시대가 되다보니 시스템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나서 누구나 원하던 투명한 세금보고 시대가 됐다"며 "오히려 한인 업주들도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서 제대로 세금 보고를 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인사회에 드문 세법전문 공인 변호사이며 강 대표의 딸인 자넷 강 변호사는 "감사만 시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다. 세무당국은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발 빠른 규정과 프로세스를 제공한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비트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 가상화폐를 거래한 경우, 주는 사람입장에서 구매, 기부, 투자 여부 등을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판매수입, 1099 발행여부, 손익 보고 등을 자세히 해야 한다는 것. "아쉬운 것은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개인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리펀드를 많이 해준다는 것에 귀가 솔깃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를 비롯한 첨단 시스템의 발달로 정말 안됩니다." 강 대표에 의하면 특히 저소득층이 많은 라티노사회에서 부실 신고로 '날벼락'을 맞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수필가로도 활약하고 있는 강신용 대표는 서울대 출신으로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를 졸업했고 캘리포니아에서 개업해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장,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표의 1남1녀중 하나인 자넷 강 변호사는 CPA자격증과 지난해 세법전문 공인변호사 자격시험을 추가로 통과해 '더블더블' 상법변호사다. 그는 UCLA와 조지워싱턴(워싱턴DC) 법대를 졸업, 김앤 강변호사 사무소 파트너이기도 하다. <기사출처=미주중앙일보>



신용남 동창회장, 이병준 회장 초청 저녁만찬 참석

신용남 동창회장이 이병준 회장의 저녁만찬에 초대되었다. 신 회장은 제3대 미주동창회 이병준 회장과 회동을 통해 동창회 발전과 옛 미주동창회의 초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병준 회장 부부, 노명호 차기 회장 부부, 민일기 남가주동창회 회장 부부, 신용남 동창회장, 백옥자 조직국장. <글: 백옥자 조직국장 >

남가주 동창회 이취임식에 초청되어 2월 초 LA를 방문한 미주동창회 신용남 회장이 이병준 회장의 저녁만찬에 초대되었다. 신 회장은 제3대 미주동창회 이병준 회장과 회동을 통해 동창회 발전과 옛 미주동창회의 초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병준 회장 부부, 노명호 차기 회장 부부, 민일기 남가주동창회 회장 부부, 신용남 동창회장, 백옥자 조직국장. <글: 백옥자 조직국장 >

스타 바이얼리니스트 김봄소리 동문 LA 연주회

국제적 명성을 지닌 바이얼리니스트 김봄소리가 1월 30일 오후 7시30분 채프만 대학 내 머스코 센터 포 아트에서 폴란드 NFM 브로츠와프 필하모닉(음악감독 지안카를로 게레로)과 카를 시마노프스키 바이얼린 콘체르토 1번 곡목 35'를 협연했다. NFM 브로츠와프 필하모닉 앤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북미 12개 도시 투어를 하고 있는 바이얼리니스트 김봄소리는 예원과 서울 예고, 서울대 기악과를 졸업하고 줄리어드 스쿨 음악대학원 석사와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받았다. 지난해 도이치 그라모폰이 발매한 2005 쇼팽 콩쿠르 우승의 주역인 폴란드 피아니스트 라파우 블레하츠와 협연 음반 '포레, 드뷔시, 시마노프스키, 쇼팽'으로 세계적 스타가 된 김봄소리는 콩쿠르 사냥꾼이라고 불린다. 2010년 샌다이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입상하며 세계무대에 첫 발을 디디고 2010년 시벨리우스 국제 콩쿠르에 한국인 연주



자로는 유일하게 입상했다. 2011년 차이나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을 비롯해 2012년 독일 하노버 국제 바이얼린 콩쿠르 입상, 2013년 뮌헨 ARD 국제콩쿠르 1위 없

는 2위를 차지하며 2016년 6월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에서 '소스타코비치 협주곡 1번'을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연주로 2위와 청중상을 수상,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플로리다 동창회, 뉴욕 동창회 초청 동계 골프여행... 미주동창회 후원 참여

유대 강화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회장 신용남)가 후원에 참여했다. 26일 저녁만찬은 플로리다 동창회 최희덕 회장 자택에서 36명 서울대 동문과 가족이 함께 했다. 최희덕회장은 환영사에서 "서울대 모교에 빛진 마음들 감사한 마음이 모여진 오늘 모두즐거운 시간 돌아 보고싶은 시간이었다"며 "서울대인이 전공과 학번, 지역을 넘어 함께 모여 우정을 나눈 것을 보니 이곳 날씨가만큼이나 훈훈했다. 우리모두 서울대 가족은 영원히 추억에 남을 시간을 만들자"며 동문들을 환영했다.

서울대학교 플로리다 동창회 회장 최희덕(초청으로)뉴욕 지역동창회(회장 조상근)와 뉴욕 서울대 골든클럽(회장 손경택) 회원들이 플로리다 동계 골프여행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월26일부터 6박7일로 지역 동창회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취지였다. 이번 행사는 1월26일부터 6박7일로 지역 동창회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동문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취지였다.

'말수회' 10주년 기념 골프대회

가을이 어느덧 깊어져 하늘 색이 파랗게 물든 지난 10월 30일, 남가주 동창회 동호회 '말수회'(회장 현기용, 문리대 64)에서는 Santa Anita Golf Course(Arcadia)에서 32명의 동문들이 모여 10주년을 기념하는 골프대회를 열었다. 말수회는 2009년 제영혜(가정대 71) 총동창회장 시, 상임이사를 주축으로 창립되었다. 제영혜 상임이사는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뉴욕 평의회회의에 갔을 때, Golden Club이 참 좋아 보였다. 은퇴한 선배들의 골프모임이라 동창회의 어른 역할을 하면서 재정 지원도 하고... 상임이사와 임원들을 모시고 첫 행사인 상견례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다." 최중혁(대학원 68) 동문이 초대회장을 맡았고, 동호회 명칭은 김건진(문리대 62) 동문이 '말수회'라 명명하였다. 그 후로 10년 동안,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모여 골프대회를

열고있다. 쾌적한 날씨여서 참석한 동문들은 푸르른 자연 속에서 해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유롭게 골프를 즐겼다. 골프대회가 끝난 후, 저녁식사는 인근 Temple City에 위치한 Shiki 일식당에서 있었다. 제영혜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현기용 회장의, 바쁘신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신 동문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가 있었다. 시상식에서의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Medalist: 최중혁(대학원 68) Champion: 김경욱(문리대 61) Nearest: 노명호(공대 61) Longest: 김귀섭(문리대 62) 행운상: 김홍욱(문리대 60) 등 12명의 수상자들은 저마다 즐거운 표정으로 상을 받으며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10년 동안 이 골프 모임을 꾸준히 이끌어 온 말수회 회장단과 회원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이 모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기사/사진: 홍선례 편집위원>

서울대 미주동창회 2020 스페셜 이벤트

4.19의거 특별원고 모집

미주 서울대동창회에서는 4·19의거 60주년을 맞아 4·19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후대에 계승한다는 취지로 4·19의거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담긴 소중한 글을 모집합니다.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글의 내용 4.19의거와 관련된 새로운 발견과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 또는 경험을 담은 동문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의 양 500 단어 (글자수 2,000자) 내외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세요

원고 마감 2020년 3월 20일(금)

*원고 보내실 분은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한경수 동문

한경수(문리 57) 동문께서 2월13일 소천하셨다. 한 동문은 73년 농협 뉴욕지사 지점장을 거쳐 78년 대농 미국 현지 법인사장을 역임한 후 95년에 LG증권 미국 법인 설립에 주역으로 활약했다. 서울대 뉴욕 동창회 31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퀴즈한인 성당사목회장을 맡았다. 또한 서울대 미주동창회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셨다. 고인의 별세를 애도하며 유가족들에게는 하늘의 위소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원한다.

한경수 동문

한경수(문리 57) 동문께서 2월13일 소천하셨다. 한 동문은 73년 농협 뉴욕지사 지점장을 거쳐 78년 대농 미국 현지 법인사장을 역임한 후 95년에 LG증권 미국 법인 설립에 주역으로 활약했다. 서울대 뉴욕 동창회 31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퀴즈한인 성당사목회장을 맡았다. 또한 서울대 미주동창회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셨다. 고인의 별세를 애도하며 유가족들에게는 하늘의 위소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원한다.

남가주 법대동창회 장승화 원장 초청 강연

“국제무대를 향한 글로벌 법률가 양성 목표”

서울법학 전문대학원 장승화 원장과 임용 부원장 초청 강연회가 지난 1월28일 2020년 용수산 식당에서 남가주 서울법대 동창회 (회장 최진석 법대 64)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창회가 후원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최진석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하여 서울대 로스쿨과 서울법대 남가주 총동창회와 의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향상시키고 Next Decade 미션 달성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장승화 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및 교수와 POSCO 사외이사를 지냈으며 Harvard Law School 석사 박사를 거쳐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재판관, 서울지방법원 판사, 미국 워싱턴 Covington & Burling 변호사, WTO 분쟁해결 패널리스트/중재인(Panelist/Arbitrator) 등을 역임했다.

장 원장은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후배들이 어떻게 자랑스럽게 이어 나갈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는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추구해야 하는 2가지"를 언급했다. 소명과 사명 또 다른 학교가 하기에는 버거운 일을 서울법대가 해야 하는 2가지는 "첫째는 국제무대를 상대로 해외 경쟁력을 가지고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법률가 들을 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둘째는 사회적인 어떤 가치의 증진에 기여를 해야한다. 사회적 책임감,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가 바라는 것으로 다른 Law School 과 다른 국제적인 법률 양성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는 법조를 양성 해야 하는 것이고 능력있는 서울법대가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는 것이 사회가 서울 법대에 요구하는 시대적인 사회의 과제가 된것 같다"고 말했다.



▲강연하는 장승화 원장



◀장승화 원장에게 서예작품 증정하는 최진석 회장과 정인환 법대교문.

그러면서 서울법학전문대학원의 많은 후원과 동참을 부탁했다. 또한 앞으로 10년, 미주동문과 함께 만드는 미래로 계속 이러한 관계를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서울대 Law School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다음은 장 원장의 Q&A 시간에 이어 임용 부원장님 홍보영상 법대 현황 및 Next Decade Mission 소개가 있었다. 서울법대 발전사 및 서울법대의 2020년 목표 펠로우(연구, 공익, 임상교육, 투터) 최소 10명 선발 앞으로 확대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내빈소개와 함께 법대 동문 이달의 생일축하와 선물 증정이 있었다. 이날 서울법대에서 준비한 선물과 정인환 회장의 서예작품 (만고정풍-서울대는 진리의 요람 이란 뜻) 을 장승화 원장님과 임용 부원장님께 증정하였다. 이어진 음악회에서는 서울대 음대 USC 유학생 제갈소망(Piano), 박예린(Violin), 정지훈(Britfone), 신신미(Soprano) 동문들의 연주가 있었다. <글/사진: 백옥자 조직국장 >

시애틀 워싱턴 SNU 포럼 세미나

이상순 박사 초청 ‘인공지능’ 강의

시애틀 워싱턴 동창회 월례행사인 "SNU Forum" 2월 세미나가 8일 (토) 오전 Newport Way Library에서 열렸다. 이번 2월 세미나는 수학자이고 통계학자이면서 워싱턴 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

에서 Biostatistics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 에서 Research Scientist를 거쳐 현재 시애틀 소재 Axio Research LLC 에서 통계 유전공학자 (Statistical Geneticist) 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순 박사가 Healthcare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기술(Machine Learning) 실제 적용에 대해서 강의했다. AI나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을 통틀어 표현하는 '인공지능' 은 이미 자율주행차나 바둑경기를 하는 알파고 등으로 적용돼 알려져 있지만 인공지능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고 헬스케어 분야에



종신이사 추대



정임현 (간호 72)

정임현 종신이사는 1980년 12월 AXA Advisors Sales Force에 합류, 재직 기간 동안 5번의 브론즈 이글상, 우수 공로상 등을 수상, 탁월한 실력을 인정 받았으며 2007년 명예 어소시에이트 상을 받은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으로 선정되었다. 2010년 1월부터는 EARC 프로듀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 동문은 서울대 졸업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에서 은퇴 계획 전문가 타이틀을 얻었다.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한국미국인 연합회, 한국미국경제개발센터, 국제한국여성전문협회 등 같은 다양한 단체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남편인 리차드 조 박사,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LA에 거주하고 있다.

장동만의 세상살이



장동만 (문리 55)

FACT
"SNS가 청소년들의 정서 불안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 비쳐진 타인의 삶에 부러움을 느끼고, 그들이 자신들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그런 삶에 끼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만족/불안감을 키운다. FOMO (Fear Of Missing-Out) 감정을 절실히 느낀다." <전미 교육 협회 (NEA)>

MY 2 C
미국은 빈부 격차가 극심하다. 한데도, 계층 갈등이 평시엔 눈에 띄게 노골화되지 않는다. 땅 덩어리가 워낙 넓어 부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직접 보고 들을 기회가 좀처럼 없다. 각각 딴 세상에서 산다. 한데, 이제 IT SNS가 이 벽을 허물고 그 '모습'을 살살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있다. 見物生心 부채질? 좋은 일? 나쁜 일?

시사 정치 등 다양한 이슈와 소재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트위터에 짧게 올린 글들을 소개하는 코너.



“모이자! 건강과 우애를 위하여!”

북가주 Zinfandel 등산클럽 7년째 매주 토요일 산행길 동행

서울대 북가주 Zinfandel 등산클럽이 지난 2월1일 328차 등산행사를 진행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특별산행을 하는것을 제외하고는 매주 토요일 8시에 같은장소에 만나 같은 코스를 걷고 반환지점에서 15분간 담소하며 쉬고 같은길로 되돌아 온다. 2013년 10월 당시 회장인 이장우 동문(문.72 학번)의 발의로 7년째 같은 시각 8시, 같은

장소에서 만나 같은 코스를 걷는다. 여의치 않아 늦게 오더라도 만나께끔 되어있다. 8시를 기점으로 앞뒤 5분 사이에 모두 만나 어느 때는 사슴우리, 칠면조 가족, 야생공작의 아침 인사를 받으며 산행을 시작한다. 듣기 좋은 자연의 노래 산새, 개구리, 급히 흐르는 실개천의 물소리를 듣기도 하고 등산길에 축 누워잠이 덜 깨 방울뱀도 있어 기

겁하면 긴 등산용 스틱으로 견어치우는 김철규 동문(공대 60)이 믿음직스럽고 봄이면 자손 번식을 위해 물가로 향하는 도농룡, 갓 태어난 어린 청개구리를 밟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걷는다. 우리가 걷는 Trail이름은 포도양조장을 끼고 있기에 Zinfandel이라 무슨 애주가 모임 같지만 애주가 모임인 것 같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들을 매주 만나면 가슴이 따스해지고 대화가 즐겁다. 의무감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나고 싶어 나가기에 그곳엔 행복이 있다. 인간은 모두 늙어가지만 아름답게 늙기는 어렵다. 우린 이렇게 매주 즐겁게 지낸다. 생략취페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말이 있다. "네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오늘이 월요일인데 토요일이 기다리고 벌써 웃는 회원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모임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끈 숨은 주인공은 총무를 맡고 있는 최승희(사회 81)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의 산행 모습을 몇 볼 수 있는 글 두 편을 보낸다. <글: 홍경삼(문리 61)>

Zinfandel 산행길은 우리를 기다린다



노상규 (공대 60)

간밤 이슬에 깨끗이 단장한 푸른동산 쪽쪽 뻗은 나무들 애교스럽게 틀어진 나무들 단비에 여기저기 불쑥불쑥 솟아 나는 새싹들 줄줄 팔팔 계곡 사이사이로 흐르는 물소리 Zinfandel 산행길은 우리들을 기다립니다

웅기종기 모여서 우리에게 인사하는 사슴들 풀을 뜯다 말고 목을 쪽 빼고 쳐다보는 칠면조들 우리를 사이사이로 함차게 뛰어가는 산행객들 걸어도다 줄줄이 서서 우리에게 미소짓는 산행객들 Zinfandel 산행길은 우리들을 기다립니다

아침잠 설치고 부리나케 오는 산행 친구 함차게 산행하라 먹거리 가져오는 친구 해박한 지식으로 덕담을 나누는 친구 아름다운 배경으로 멋진 사진 찍는 친구 가수인 척 풍내고 노래 부르는 친구 우리의 안위를 위해 각 지 준비하는 친구

그래요, 푸른 하늘 아래 꼬불꼬불 Zinfandel 산행길은 우리들을 기다립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시간



이장우 (문리 72)

요즈음 저녁 늦은 시간까지 노동하느라 이메일도 제때 못 본 바람에, 음력 정초 이산자 형수님 부부가 해오신 팔고물 백설기 떡과 김희식 형수님 부부가 일 년 동안 농사 지으신 온갖 과일 그리고 최승희 총무님 부부가(?) 정성 들여 만든 약식과 뜨끈한 계피차를 얻어먹고도 감사하던 맛갈 하나도 못 단 채 '떡튀'한 것이 내내 찜찜해서 여기 석고대죄의 참회를 드립니다.

어쨌든 산을 열심히 걷다 보면 이렇게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대명절이나 계절이 바뀔 때쯤이면,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을 기원하기 위해 회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떡'과 과일과 음료' 같은 고스레 음식을 마련해 오시는 '번개 먹방'이 수시로 벌어지곤 했습니다.

하긴 겨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재능들의 집합이지만, 그 다양한 재능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특별한 혜택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 1) Professional 수제 먹거리 기회 2) 발을 빼어두고 산행에 참석하는 정실력 모범 3) 생비를 맞으며 산을 오르는 기상으로부터의 자극 4) 관객 수에 관계없이 신나면 노래하는 가수의 흥기 6) 일 년 내내 우리 먹방 반찬을 위해 훑과 싸우는 근면 정

주 우리는 media 행보 (매주 들어가보세요) 9) 젊은 삶을 역설하기 위해 '내 나이가 어때서' 를 열창하는 BTS 팬을 비롯 모든 회원의 해박한 전문 지식과 여행 지식이 끝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아마 으뜸가는 혜택은 우리가 산을 오를 때마다 커가는 우리의 감수성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매번 변하는 산의 풍경을 보면서 남들 보다는 더 쉽게 감탄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감동할 줄 아는 감수성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간 매일 다녀도 내내 같은 모양인 방안 코너를 돌아 TV 앞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보다는 적어도...

/ 오피니언 /

대안적 진실과 블록체인



송윤정 (인문 89)

“진실이 무엇이나?” 2천 년 전 빌라도가 예수께 물은 질문이다. 이 질문은 그보다 훨씬 앞서 인류가 존재한 역사만큼 오래된 질문일 것이다. 19세기까지 수천 년간 서양의 철학적 사고는 절대적 진리를 증명하고자 했다. 20세기에 들어서며 합리적 이성에 기반한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모더니즘에 반대하여 다양한 시각과 비이성적 인식, 상대적 진리 등을 수용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일어났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대학을 다닌 나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밀란 쿤데

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등을 읽으며 포스트 모더니즘을 논했고,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림>을 보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취했다.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수천 년의 사고를 깨고 상대적 진리에 눈을 뜨게 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미술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12월 스페인 남부로 가족여행 중 피카소가 태어난 곳인 말라가에 들러 피카소 박물관을 둘러보았다. 한 사람의 한 시각에서 바라본 단면을 그려온 기존의 미술의 틀을 깨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본 입체적 표현을 한 입체파의 대표 화가인 피카소. 그가 그린 바이올린이나 여인은 전 방향, 위아래에서 바라본 입체를 2차원 평면에 표현한 것이다.

어떠한 실체나 현상을 보는데 여러 시각을 담아 더 본질에 가깝게 이해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진리는 모두 상대적이라 주장하며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고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옹호되

도 한다. 최근에는 이에서 더 나아가 ‘대안적 진실’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2017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저조한 인파를 미 역사상 최대인파가 모였다고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을 하고는 ‘대안적 진실’이라 둘러댄 이후 이러한 현상은 이제 나의 모국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조국과 그 가족의 비리 사태로 거짓과 진실의 경계를 알 수 없게 된 한국을 바라보며 진실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새삼 생각한다. 기원전 10세기 두 갓난아이, 밤새 질식해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지혜의 왕으로 소문난 솔로몬을 찾아가 진실을 가려달라고 했을 때처럼 인류사는 이제까지 권력을 가진 자의 판단에 따라 진실이 결정되어왔다. 그 결정자가 지혜로운 솔로몬과 같으면 천만다행이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해 세상은 부조리와 불의가 넘치는 곳이 되어왔다.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어 부조리가 넘쳐나는 세상을 줄이고자 블록체인이 도입되고 있다. 솔로몬의 판단을 요구한 사건의 경우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신생아의 ID를 기록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은 기원전에는 있었지만 현대에는 없을 터라고 생각한다면, 난민이

나 자연재해로 혹은 세상에 태어났어도 신분증이 없어 자신이 누군지 증명할 수 없는 이가 전 세계에 10억이 넘는다는 걸 상기해야 한다. 또한, 토지대장에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효율성 증가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문건이 없어지거나 부정부패로 토지를 강탈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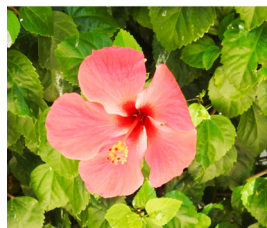
대학 총장이 표창장을 주었으나 위조했느냐 하는 사실 논쟁도 모든 증명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공문서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문서를 도입하면 논란의 불씨를 없앨 수 있다. 2015년 MIT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자격증명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회사 러닝머신 (Learning Machine)이 함께 개발한 블록증명(Blockcerts)은 미국뿐 아니라 2017년 말타에서 시도되어 유럽위원회에서 2019년에 발행한 <디지털 정부를 위한 블록체인>에 상세히 나와 있다. 싱가포르에선 2019년부터 싱가포르 국립대학 등에서 오픈서트(OpenCerts)라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 증명서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널리 활용되면서 이권에 따라 거짓이 대안적 진실로 둔갑하고 온 사회가 이를 두고 소모적 논쟁에 휩싸여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런 터무니없는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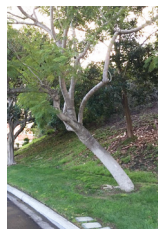
손명세 (공대 60)

산책길 풍경 다섯



내력

이른 아침 한송이 꽃
밤새 초록들의 쑥덕거림에
나는 밤잠을 설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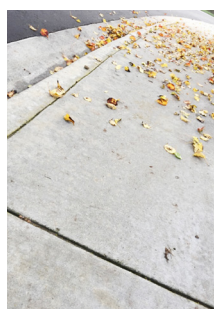
금지

가슴을 펴고
나서, 돌아보다



길

사시사철 그 길
어느 날
문득
길이
묻는다



갈 길

한 계절 내내 네 말이 귀에 담겼다
바람아
이제
사~힐 곳은
어디냐



빈집

그늘마저 흔적을 지우려는 시간
서성이는 초록 흙레스는
깃틀 까닭 두고 소리
망연히 기우리는
한마리
새

4차 산업 혁명



서윤석 (의대 62)

불씨를 소중히 다루던 손
기관차를 발명하던 연구
거미줄 같은 전파망을 찾아낸 두뇌로
현대문명을 창조한 우리는
이제 다리마저 가늘어지네

몸과 피부와 얼굴이 우리와 같은
뛰어난 판단력과 감성을 지닌
인공지능이
교향곡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쓴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천둥 번개가 치는 날
단추가 잘못 끼워져
성난 그들이 총구로
우리를 겨누고 다가온다면
울 줄도 모르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 없이 편안을 즐기고
은 몸을 흔들며 쾌락의 칼날로
하늘의 심장을 찌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마저 허비하는
먼지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구촌의 우리

*미주의대회보 <시계탑> 편집장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미주동창회 특별한 혜택

서울대에서 한국어를 배우요!

관악캠퍼스 2020 단기과정

연수 과정	연수 기간	서류 접수 마감	등록금	비고
3주	2월 10일 - 2월 28일	1월 10일	770,000원	* 3주 과정 - 주5일, 오전 4시간 한국어 수업 * 5주 과정 - 주4일 오전 4시간 한국어 수업 주1일 한국 문화 체험 (판문점, 박물관, 요리체험 등)
5주	6월 29일 - 7월 31일	5월 29일	1,540,000원	
3주	8월 3일 - 8월 21일	7월 3일	770,000원	

* 이외에도 관악캠퍼스에는 정규과정, 저녁반, 15주 과정 등이 있습니다.

시흥캠퍼스 2020 여름 프로그램

연수 과정	연수 기간	서류 접수 마감	등록금	비고
스마트 초단기 한국어 문화과정 (2주)	6월 8일 - 6월 19일	5월 4일	1,000,000원	* 한국어 수업 - 총 6일, 하루 6시간 * 문화 수업 - 총 4일 (K-POP 댄스, K-Beauty, 한국 요리, 태권도 체험 등)
	6월 15일 - 6월 26일	5월 11일		
	8월 24일 - 9월 11일	7월 20일		

* 이외에도 시흥캠퍼스에는 스마트 한국어과정(8주), 진학 목적 한국어 집중과정(7주) 등이 있습니다.

미주동창회 특별혜택

· 미주 총/지역동창회 총34개 지역 추천 동문자녀 장학금
(관악 캠퍼스 5주/3주 과정 등록금 10%감면)

· 미주 총동창회 추천 우수 동문자녀 장학금
(관악 캠퍼스 5주/3주 과정 등록금 전액감면 1회)

지원 : <http://lei.snu.ac.kr>



문의 :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 (82-02-880-5488, klp@snu.ac.kr)



예술과 음악의 도시 시카고(Chicago)

/ 여행기 /

1986년 1월 7일 엘에이에 도착했다. 엘에이에서 89년 추수감사절 전까지 있었고 그 이후로 줄곧 뉴저지에 있었으니 미국 생활이라 하면 주로 뉴저지,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생활이다. 그런데 중부에 있는 시카고엔 두바이, 파나마시티 같이 열댓번은 온 곳이다. 그래서 언급할 내용이 많다. 시카고의 명물을 보려면 시카고 시티 패스를 사서 이용하길 권한다. 주요 명소도 그렇지만 경제적인데다 줄을 서지 않고 패스트 라인으로 통과할 수 있으니 말이다.



신규천 (상대 73)



미시간 호수는 바다다. 황혼 무렵에 미시간호를 끼고 사진을 담는 것은 참 운치가 있다. 몇 번을 오지만 기회가 날 때마다 다시 포즈를 취하곤 한다.



시카고 윌리스 타워에서 바라본 시카고의 모습.



2018년에 엘리베이터 사고가 난 존 행콕크 전망대도 빼놓을 수 없는 고층건물이다.



시내 중심가를 걷다가 보면 밀레니엄 파크를 만난다. 거대한 조형물이 보이는데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대형 거울인데 특수 재질에 비춰지는 모습이 특이하다. 사진 위는 인물전광판이라고 해야 할까? 계속해서 인물이 바뀐다.



원래 시카고 강은 지금과 달리 반대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하수도로부터 오염된 물이 시카고 강을 오염시키고 나아가 콜레라가 창궐하여 시카고 인구의 10%가 감염되어 시 전체가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강의 흐름을 반대로 바꾸어 역발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시카고가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우리가 만약 강안이 오염되어 이런 안을 내놓았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의 분위기로 보아 시행 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저항에 부딪혔을 것이다.



시카고 다운타운을 걷다보면 뉴욕과 엘에이와는 다른 도시 냄새가 난다. 적당한 크기며, 움직이는 사람들의 규모며 그들이 풍기는 미국인 느낌이며 모두 시카고 고유의 특징이 있다. 게다가 몇 번의 말을 걸어봤는데 다들 친절하다. 걷다가 유리 너머 ABC 방송 스튜디오에서 막 뉴스 데스크를 준비 중인 모습을 포착했다.



저녁 식사후 경험 삼아 '그린 밀' 재즈 바를 한번 가보았다. 현지인들이 북적대는 가운데 보컬, 기타, 드럼, 실로폰 악기 등을 이용하여 재즈 연주를 하는데 낯선 나도 어깨가 들썩이게 되는 것을 보면 음악은 세계 공통어인가 보다. 재즈를 좋아하는 이는 한번 가보길 추천한다.

여행 팁- 의료

여행 중에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밤새 북쪽으로 고생하다 아침에 주위에 있는 'Immediate Care' 시설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일반 닥터 오피스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Emergency Room (응급실)에 가면 보통 오래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엄청나다. 가면 빨리 봐주고 비용은 응급실 보다 싼 시스템인데 처음으로 사용해 보았다.



박평일 (농대 69)

/ 명상의글 /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 버릴 것을 저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 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서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텨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장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 명 남아있어야 하겠지요.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 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위로 받고 싶은 마음은 날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끼껴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시라고 감히 청할 순 없사오나 제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



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적당히 착하게 해주소서. 저는 성인까지 되고 싶진 않습니다만... 어떤 성인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렇더라도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는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 작자 미상의 17세기 한 수녀

오늘 아침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한 대학 후배로부터 "기도에 대한 글이 부족 많이 올라옵니다" 하는 짤막한 코멘트를 받았다. 그래서 "예전에 읽

노발대발 욕설을 퍼부었다. 기도란 그런 것이다. 나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5년 전쯤일 것이다. 한국에 살고계시는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졌다. 소식을 전해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에 일년이 넘게 새벽 4시에 일어나 근처에 있는 한국교회에 나가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단 하루도 새벽기도를 거른 적이 없었다.

매일 새벽기도에 고정적으로 출석했던 신도들의 숫자는 고작 서너 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기도 시간 내내 어둠속에서 들려오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통곡(?) 소리에 내 정신을 도저히 가다듬을 수가 없었다. '무엇을 달라' 하는 지 그 내용이 들려오지 않았고, 교회 안이 어두워서 그들의 얼굴을 분간할 수가 없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톨스토이 같은 곤혹은 피할 수가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유식하나 무식하나, 믿음이 많은 성직자나 나 같은 건달이나, 세월이 가면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일본 작가 소노 아야코(베스트 셀러 '이렇게 나이들고 싶다는 저자'는 '노인이라ں 경력도 아니고 훈장도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늙음에 대한 이해와 인식, 대처 방법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를 수 밖에 없다. 해답은 있어도 정답은 없다.

베스트셀러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의 저자 '와타나베 자즈코' 수녀는 그의 글 속에서 "늙는다는 것이 신이 주신 선물이다"고 주장하며 "당신이 선 자리에서 꽃을 피우라"고 충고를 했다. 또 일본 시인 '사마무라 신민'은 60이 넘는 나이에 쓴 시에서 이렇게 늙음을 찬미했다.

"늙는다는 것이
이토록 아름다운 꽃밭에
늙는다는 것은...
수양버들처럼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것..."

나는 노년의 하루 하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 버지니아 숲속 아침메모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92년 전 미국에서 거행된 31절 1주년 기념행사의 사진.1920년 3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다뉴바(Danuba)에서 거행된 31운동 1주년 기념행사를 찍은 사진으로, 한인들이 31절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다뉴바 시가행진을 마친 후 다뉴바한인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미주한인사회는 광복이 될 때까지 매년 최대의 애국절 행사로 31절 기념행사를 치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각종 독립운동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데 앞장섰다.

독립 향한 ‘민족 열망’ 태평양을 넘었다

3.1절 101주년 - 미주한인, 독립운동의 자금줄 역할 조명

■3.1절의 의미
3.1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 하나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토요일 (음력은 1월 29일), 독립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만세시위를 벌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첫 걸음에 나선 독립선언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3.1 운동은 세계에서든 비슷한 예가 많지 않은 대규모의 집단적 저항 운동으로 광복에 대한 한국인의 염원과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으며 그 정신을 승계하여 정부를 수립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광복절이 건국절이 아닌 이유가 삼일절과도 관련이 있다. 3.1 운동을 계기로 하여 한반도를 비롯하여 해외 각지에서 존재하던 독립운동 구심체가 통일된 민주주의 제도의 임시정부 수립운동으로 이어져, 서울의 한성정부의 법률을 이어받아 연해주 대한국민의회가 상하이 상해정부가 합쳐지는 형태로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것이다. 즉, 3.1 운동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인 민주공화국 체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고 이 임시정부의 헌장과 강령, 헌법 등이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통해 계승되어 오늘날 헌정의 뿌리가 되었기에 대한민국의 출발일로서 국가가 축하하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자금줄이 된 미주한인들의 독립운동
한반도에 일제 침략의 사슬이 점점 죄어오던 1903년, 97명의 한국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일자리를 찾아 태평양을 건넜다. 그로부터 10여년 후, 하와이 노동 계약이 끝나자 샌프란시스코를 통해 본토에 입국한 2,011명의 한인과 후손들 중 일부가 다뉴바, 리틀리 지역에 정착한다. 중가주의 번창한 농업지대였던 다뉴바에는 당시 인근에 300~400명의 한인들이 대부분 과일농장 노동자로 일하며 살고 있었

다. 1920년 이들은 인종차별과 싸우며 하루 10시간 노동에 일당 20,30전을 받으며 돈을 벌었다고 한다. 그 때 월 생활비가 10~15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이민선조들은 독립운동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를 뒷받침한 독립자금의 거의 절반이 미주한인사회에서 나왔다고 한다. 가주한인역사연구회 차만재 박사에 따르면 상해 임시정부 수립 당시 미주 지역에서 상해로 간 독립자금의 20% 이상이 이 지역에서 모아졌고 '왜간장 불매 운동' 등으로 국사 교과서에 등장하던 대한여자애국단이 다뉴바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이들 중 김호, 김형만 선생은 복숭아 농장을 일구고 '털없는 복숭아'를 개발해 특허까지 확보한다. 사업수완이 뛰어났는지 이들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어, 큰 부를 축적해 한인인민자 중애 첫 백만장자가 된다. 이 두 사람이 설립한 김형제 상회 (Kim Brothers Company)는 독립운동의 자금줄이 되었다.

■미국 언론에 비친 3.1절 독립운동
"한국인 민족주의자들은 3월 1일을 그들의 독립의 날로 삼았고 이날 전국의 모든 도시와 마을이 한국 독립을 위한 행진과 시위를 가졌다. 일본 당국은 수천 명의 시위자들을 체포했다. 그들의 옷을 벗겨 거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았다"

1919년 3월 1일 '대한 독립을 요구하는 3.1 운동이 시작된 지 며칠 뒤인 3월 13일, 뉴욕 타임스(NYT) 3면에 실린 '한국이 독립을 요구하다'란 기사의 일부 내용이다.

간급 타전(special cable)인 이 기사는 "한국

의 독립운동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정보가 이곳에 전해졌다. 전국 각지 모든 계층의 일본인(한국인)들이 광범위한 운동 속으로 뛰쳐나왔다'고 시작된다. 인권과 주권 회복의 열망을 담은 3.1운동을 국제 사회에 알린 최초의 기사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이름을 빼앗긴 한국이 3.1운동으로 인해 기억 저편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이 기사를 시작으로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LA타임스·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 등 미국의 유력 언론은 3.1운동에 일제히 주목했다. NYT는 15일자 7면 톱기사로 "한국인들은 여전히 일본과 싸우고 있다"는 속보를 이어간다. 이 기사에는 "4만 명이 체포됐다. 독립 운동 리더들이 전하기를 일본 군인들은 한 소녀가 성명서를 한 손으로 들고 있을 때 칼로 손목을 잘랐고 소녀가 다른 손으로 성명서를 들자 그 손마저 잘랐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3.1 정신을 담은 독립선언문은 6월 15일자 6면 톱기사로 소개했다. "한국이 독립을 선포하다"는 제목의 이 기사는 강권으로 이루어진 낡은 질서를 부정하다는 소제목과 함께 "조용한 은자의 왕국으로 4,252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나라가, 33인의 시민들이 서명한 문건을 통해 한국 인민의 자유를 선포했다"며 독립선언문의 전문을 그대로 소개했다.

3.1운동에 주목한 것은 뉴욕타임스 뿐만이 아니다. 또 하나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는 1919년 4월 6일자 기사에서 '한국인 반란자들이 조직되다(Korean rebels organize)'라는 제목으로 미국 언론 최초로 임시정부 수립을 보도하기도 했다.

■독립운동의 유산은 무엇인가
독립운동의 유산은 대한민국 헌법에 온전히 반영되어 있다. 1987년 10월27일 제9차 개정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혀 놓았



미 주요 언론 중 최초로 31운동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1919년 3월 13일자 3면 '한국인들이 독립을 선언하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31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났으며, 일본이 무자비한 탄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마이크로필름 촬영>

다. 3.1운동의 백미는 우리 민족 스스로 독립을 '선언'한 것이다. 독립을 '청원'하지도, 국제열강에 '구걸'하지도 않았다. "오동(吾等)은 자(茲)에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함으로써, 스스로 독립국가와 자주국민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가와 정부를 세웠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임시정부'였다.

왜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 했을까. 대한제국을 계승하고 있지만, 황제가 주권을 오로지 하는 전제군주국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권을 갖는 민주공화국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을 통해 역동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야말로 독립운동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일'이다. 모든 것이 낯설고 험난한 시절이지만, 우리 민족은 독립의 꿈과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각계각층의 민족대중이 다양한 사상과 이념을수용하고, 독립운동 지도기관을 만들고, 각종 사회단체를결성하여 광복의 날을 열었다. 온 겨레가 역동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성과이자 결실이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민족은 그런 독립운동의 유산 위에서 빛나고 있다.

<출처=정연진의 '원코리아운동' 이야기/중앙일보-3.1절 특집기사/ 한국문화재단>



최용완 (공대 57)

한반도는 세계적 변화의 주축이다

1919년 3월1일에 우리 선조는 일본의 식민지 안에서 독립운동으로 시작하여 세계적 파도를 일으켰다.

100년의 세월이 지난 2020년 3월에 우리의 과거를 성찰하고 우리 미래의 비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은 패전국 일본에 빼앗긴 모든 것들 중에 조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소련의 공산정부는 북한을 차지하고 미국의 자유민주정부는 남한을 차지하여 남북분단이 시작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반

후에 반세기 넘도록 변화와 역경은 오늘에 이르렀다.

일본은 한국전쟁의 기회로 경제부흥을 시작하여 세계 제2의 경제강국이 되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였지만, 한국 사람의 자유경쟁 능력

하다.

세계적대세는 이미 미국의 서양사조에서 태평양 건너 동아세아 사조로 옮겨지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나 미국의 자국이 득 주의처럼 몸을 추스름은 세계적 지도력의 위치에서 약해지는 현상이다. 미국에 의존하는 일본도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교육 현장을 바꾸어 미래 인재 길러낼까. 어떻게 고용 환경을 개선하여 미래를 짊어질 기업을 키워낼까. 어떻게 세계정세에 어우러지는 국가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일까. 인구감소와 100세 시대의 삶을 대비하는 끝없는 질문이 이어진다.



3.1만세운동, 서세옥(Suh Se-ok), 1986년 수묵 채색.

동아세아 세계적 지도력 구축은 한국의 역할
북한 내부의 3.1운동 정신으로 자유 회복케 해야
선조들이 이룬 거대한 주축 현대에서 이루어야

도는 6.25의 세계적 진통을 겪었다. 소련 무기와 탱크를 앞세워 북한 인민군은 거침없이 남한으로 진격해왔다.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 유역에 이르렀다.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남한군과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연합군의 반격으로 평양을 함락하고 압록강 유역에 이르렀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다시 후퇴하여 38선 경계선 주위에 휴전협정을 맺었다.

6.25한국전쟁으로 3년 1개월 동안에 한반도에서 남북한군 140만여명이 사망, 부상, 실종되었으며 연합군과 중공군은 151만 9천여명의 인명 피해를 치렀다. 군인들의 피해보다 민간인 피해는 더욱 컸다. 휴전

으로 1980년대부터 기적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2010년에 세계 200여 나라 중에 10대 경제 강국으로 자리잡았다. 북한은 김씨 세습독제 체제로 공개처형의 공포 속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묶여서 자유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머지않은 장래에 해방되어 남한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남한은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사회주의 경향의 진보 정부가 북한과 교류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북한의 독재체제는 개방이 두려워 핵무기 위협으로만 국제적 위치를 확보하려고 고집한다. 한국의 정치는 진보와 보수 사이에 쏠림 현상이 심하여 아직도 성장하는 과정의 불안정한 민주주의 현실인 듯

한반도는 인류가 태평양의 품에 안겨 지구의 젖을 먹는 젖꼭지이다. 한국은 과거사에 집착하지 않고 긍정적인 미래를 창조하는 지도력을 구축하여 동아세아를 조화롭게 꾸러가는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때다. 동아세아의 경제력을 조화시키고 한국의 현대, 삼성, 엘지, 등의 산업적 지도력과 방탄소년단, 기생충 영화처럼 문화적 지도력으로 한반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위치에 있다. 우리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동아세아의 거대한 주축이 꿈을 거리고 있다.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김영석 (음대 74)

/ 신화와 음악 /

오르페우스의 노래

오르페우스와 그의 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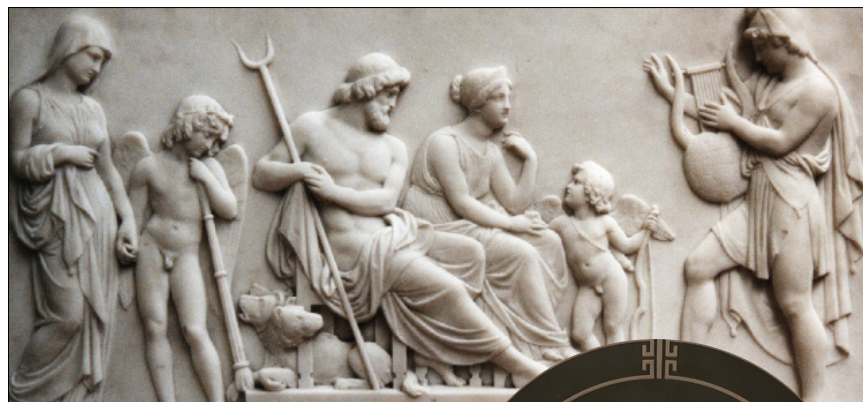
오르페우스가 류트를 어루만지며 노래를 시작했을때 그의 노래는 얼어붙은 산꼭대기로부터 깊은 숲속까지 울려 퍼지고 숲은 한없는 경외감으로 오르페우스를 향해 머리 숙인다. 그의 노래는 태양과 목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처럼 온갖 들꽃과 꽃들을 영원한 봄날같이 소생 시킨다.

그가 노래를 시작하면 모든 만물들은 사나운 파도 까지도 머리를 맞대고 가만히 그의 옆에 기대어 귀를 기울인다. 그의 승고한 음악은 모든 걱정과 슬픔을 사라지게 한다.

-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Orpheus with his Lute", 필자의 줄여 임을 밝혀둔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인들은 수와 비례를 가리켜 '로고스(Logos, 이상)'라고 말했다. 수와 비례는 이상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법칙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음악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수학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에 반하여 고대 그리스에서 음악을 이성으로 판단하기 전에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인간의 느낌과 경험을 우선시하고, 또한 모든 것을 초월한, 노래 속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던 음악가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음악가로 불렀고 예언자, 혹은 마술사라고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랐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감추인 거문고(심금)를 울리는 원리를 알고 있었을까? 그렇지만 결국 그 신성한 노래를 듣지 못하는 무리들에 의해 살해 당해 버렸다. 그가 바로 오르페우스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모든 시인들과 음악가 중 가장 위대한 인물로 오르페우스를 숭배했다. 헤르메스가 Lyra를 발명했지만 오르페우스는 그것을 기술적으로 완성시켰다. 체오스(Ceos)의 시몬데스 (Simonides)와 같은 시인은 오르페우스의 음악과 노래가 새와 물고기, 야생의 짐승을 매료시키고 나무와 바위를 춤추게 할수있었고, 강의 흐름을 바꿀수도 있었다고 한다. 오르페우스는 그의 아내 에우리디체를 찾아서 죽음의 세계까지도 방문하고 돌아온 몇 명 되지 않는 그리스 영웅이었다. 그의 음악과 노래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



▲하데스(지옥의 왕)가 지옥에서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듣고 있다.
▶노래하고 있는 오르페우스

고 있었다고 한다. 모든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가수의 원형인 오르페우스는 서구 문화의 고전 신화 중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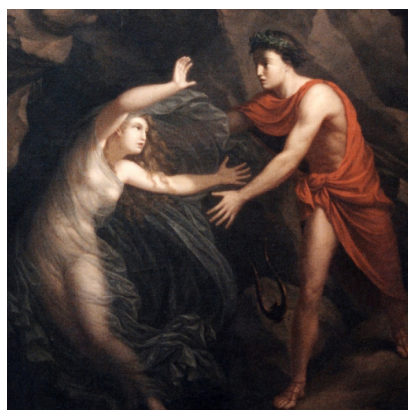
오르페우스의 아버지는 아폴로신 이거나 또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 Thracian 왕 Oeagrus (Thracian 은 그리스, 불가리아, 터키 사이에 있던 고대국가)라고 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뮤즈 칼리오페 이거나 혹은 다른 뮤즈라고도 한다. 그의 생가와 거주지는 올림푸스 근처의 펴름피아 (Pimpleia) 에 있었다고 한다. BC 3세기경 Apollonius Rhodius 에 의해 쓰여진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Argonautica에 따르면, Pimpleia는 Oeagrus와 칼리오페의 결혼식 장소였다. 오르페우스는 그의 어머니와 그녀의 여덟 명의 아름다운 자매들과 함께 파르나소스에 살면서 아폴로를 만나게 되는데, 음악의 신 Apollo는 오르페우스에게 황금으로 만든 리라를 주었고 그에게 그것을 연주 할수 있도록 가르쳤다. 오르페우스의 어머니는 시를 지어 음악에 부치는 것을 가르쳤다. 그의 어머니인 칼리오페도 모든 현악기의 여신인 만큼, 그 또한 모든 종류의 현악기도 다 섭렵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는 그가 하프(Harp), 루트(Lute), 리라(Lyra) 당시의 모든 현악기에 능했다고 한다. 오늘 날 그 악기들이 어떻게 다른 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손에 들고 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연주 할수 있는 그런 현악기가 아니었나 추론해 본다.

오르페우스 (Orpheus)는 Argonauts(Argo 고대 영웅들) 탐험대에 합류한 적이 있는데 Siren의 노래로 곤경에 처했을때, 더 아름다운 그의 노래로 사이렌의유혹을 제압하고 위기에서 벗어 날수가 있었다. 그는 돌아오자 곧 에우리디체와 결혼하게 되었으나 행복도 잠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된다. 산책을 나간 에우리디체는 자신에게 추근대는 양치기 아리스타이오스를 피해 급히 도망치다 뱀을 밟아 물려죽게 된 것이다. 비탄에 빠진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체를 다시 살리려고 죽은 자들



의 세상으로 에우리디체를 찾아 나선다. 그의 노래와 연주로 그는 저승의 강(Styx 강)수호자 인 카론(Charon)과 저승의 문을 지키는게 체르베루스를 매료 시키고 마침내 저승의 왕인 하데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되었다. 하데스는 오르페우스가 삶과 빛의 세계로 다시에우리디체를 데려가도록 허락하였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의 땅을 벗어날 때까지 에우리디체의 눈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조건이었다. 두 사람은 생명의 세계로향하는 출구를 마침내 발견 하였고 오르페우스는 태양을 맞이하는 순간 그 기쁨을 에우리디체와 나누려고 뒤에서 따라오던 에우리디체를 바라보았다. 순간 에우리디체는 한마디 비명과 함께 칠흙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지상에 나온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체를 잊지못하여 다른 여성과의 접촉을 일체 멀리하고 자기를 추종하는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다. 후에 그는 Thrace 여인들 혹은 Maenades 라고 불리는 디오니소스 신전의 여사제들에 의해 살해 되었는데, 머리와 사지가 여덟조각으로 찢겨져서 버려졌다고 한다.

그의 죽음의 동기는 여러 가지 다른 설명이 있지만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은 Aeschylus의 것으로, 그 당시 디오니소스 신전을 모시던 여인들이 라이벌이었던 아폴로 신전을 더 선호하는 오르페우스를 미워하여 살해했다고도 하고, 혹은 오르페우스가 여성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중세와 근대 유럽에서는 오르페우스의 죽음을 동성애자에게 떨어진 천벌의 예로 듣기도 했다. Orpheus를 살해한 여인들은 오르페우스의 목을헤브로스 강에 던졌다. 그러나 잘린 목은 에우리디체의 노래를 부르면서 강에 흘러 바다



오르페우스가 저승문을 나서기 직전 에우리디체가 사라지고 있다. - C.G. Kratzenstein-Stub(1806)

로 나가 레스보스 섬해안에 당도했다. 주민들은 예를 갖추어 오르페우스의 머리를 묻었고 그 후 레스보스 섬은 오르페우스의 가호에 의해 많은 문인을 배출하게 되었다.(고대 여성시인 Sappho가 Lesbos에서 나왔는데 lesbian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Orpheus는 그곳에서 추앙의 대상이 되었고 신탁을 내렸는데, 한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델피신전의 아폴로신탁을 능가했다고 한다. 뮤즈들은 조각난 그의 시체를 모았고, 그의 리라를 찾아서 하늘에 안치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름의 대표적인별자리인 거문고(혹은 리라)자리이다. 그의 노래는 나이팅게일에 의해 아직도 불리고있다.

수많은 시인들과 음악가들이오르페우스에게 시를바치고 노래를 만들었으며,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는 중세시대의 로맨스인 Sir Orfeo의 해피 엔딩으로 변형되어 제공되었다. 이 주제로 가장 성공한 작품중 하나인 글루크(Christoph Willibald Gluck)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에서는 오르페우스가 죽은자들의 세상에서 에우리디체를 구원해 나와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사는 해피엔딩으로 각색 되어있다.

르네상스 시대의 악보가 존재하는 역사상 첫 오페라 줄리오 카치니(Giulio Caccini)와 자코포 페리(Jacopo Peri)의 공동 작품인 에우리디체 (1600 초연)의 주제가 되었고 르네상스 때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오페라와 영화, 연극의 소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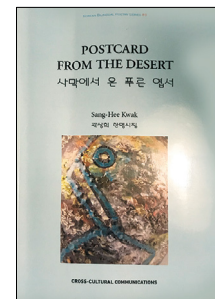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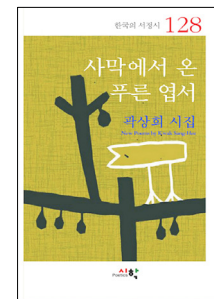
김영석 교수

현재 Mansfield University 에서 32년째 성악과 오페라 담당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KAUPA(북미한인교수협회) 부회장을 맡고있다. 서울대(B.M),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M.M) & University of Miami(D.M.A)에서 수학.

/ 시간소개 /

사막에서 온 푸른 엽서

<Postcard from the desert>



<영문판>



저자 **곽상희** (문리 52)

여류시인. 경상남도 울산 출생.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1963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1963년 미국 오하이오대학 언어학과에서 공부한 후 미국 뉴욕 맨해튼 리트 교육대학원 아동교육학과를 졸업하였다. 미주 기독교 방송국과 언론기관에서 고정칼럼 및 시평론을 담당하였다. 글쓰기와 관련된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2001년부터 해바라기 유치원을 경영하였다. 1980년 [현대문학]에 시 <허드슨 강의 노을> 등이 추천받아 등단하였다. [죽순] 등인으로 활동하면서 동인지를 발간에 참여하였으며, 현대시인협회 및 현대문학협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대표적인 시로 <들꽃은 밟히어도>, <내가 너일 수 있을 때>, <바람이 불면, 꽃은>, <기러기들 시 쓰다> 등이 있다. 1993년 올림포에트리 시인, 2007년에는 계관시인으로 선정되었다. 국제여류시인상과 제1회 박남수시인상, 제1회 미주시의회 대상, 미도서시인상, 영국 백과사전 국제시인상, 국제우수시인협회 주관 국제우수시인상, 2009년 제2회 뉴욕문학상, 2011년 소설 <시지푸스의 도전>으로 한국비평가협회 주최 공모전 소설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였다.

나 그리고 바람

시를 위해 네가 필요하단다. 이곳, 그곳에서 먼데 있는 이상한 숲에선

시를 위해 너의 눈물이 필요 하단다
너의 따듯한 손이

오늘도 나는 너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린다.
언제나 열려진 문,
거울에 반사되어 햇빛 부신 문, 내앞에서 석경(石磬) 같다

그러나 나는 한발자국도 뒤돌릴 수 없어

사랑도 미움도 바람 따라 이미 떠나갔는데

몸보다 몇 천배로 커버린 네 사랑 앞에서
에베레스트 산정에서 별빛처럼 앓다 지상의 가련한 꽃 하나

바위에는 비가 되어 내려도
사막의 바위 뿌리의 가슴을 풀어 헤쳐도
시간의 궤도는 재연되지 않아

바위가 나비가 되고 별이 되기까지
너는 천만 세월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The Wind and I

For poetry, I need you
in a strange forest far from here and there.

For poetry, I need your tears,
your warm hands

Today, as well,
I knock on your always open door,
The blinding glare of the door in the sun
reflected in the mirror, a stone mirror before me.

But even a step was irreversible,
after love, hatred, and the wind already blew away.

A pitiful flower on the earth,
aching like starlight on the peak of Mt. Everest
before your love swollen a few thousand times
bigger than its size.

The track of time doesn't re-enact
even though it falls out of the sky as rain a rock.

Even though winding out of the depths of roots
of desert rocks.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화합의 장'

서울대 미주동창회 제29차 평의원회의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2020년도 평의원 회의의 평의원 및 일반 동문들이 함께 참가, 만남의 즐거움과 배움의 기쁨이 가득한 이색적인 행사를 마련했다.

주최측에서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동문 여러분께 기존 평의원회의와는 다른 색다른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크루즈 여행을 준비했는데 이번 행사에서 특별히 명망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심도 깊은 강의를 해줄 세미나 시간을 마련했다.

Manhattan Cruise Terminal 에서 출항하여 버뮤다로 출항하는 Carnival 선박은 길이 272.19 미터, 폭 35.36 미터, 승무원 수 1100명, 총 탑승객 2764 명으로 구성된다. 쪽빛 버뮤다의 물색을 보며, 선내에서 평의원 회의의

열면서, 미주 동문들과 지인들도 참가할 수 있는 추억이 담길 것이다. 버뮤다는 미국 해안에서 약 600마일 떨어진 북대서양에 위치한 국가로 여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 사람이 사는 섬들은 20 여개이다. 버뮤다의 위도는 대략 아틀란타와 제주도와 비슷하다. 크루즈 선상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은 수영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극장, 카지노 등이며, King's Wharf 에 내려 근처에 있는 버뮤다의 수도 해밀턴 관광과 선택적인 개인 관광 등을 할 수 있다. 협동과 친목을 하면서 단합하고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는 장으로 이번 크루즈 평의원 회의의 행사에 많은 동문님들의 참여를 바란다.



세/부/일/정

제 1 일 <뉴욕 항>

12:30/ 보딩시작
4:00pm/ 출발
- Manhattan Cruise Terminal 도착, 승선수속 시작, 여권, 신용카드, 크루즈 승선권 확인 후 SHIP카드(룸카드)를 받아 객실(큰 가방은 항구도착시 택을 붙여 팀과 함께 포터에게 부탁하면 객실로 배달됨)로 입

실(점심으로 스낵 및 바비큐가 준비)

- Manhattan Cruise Terminal 출항, 버뮤다 항발

제 2일 <항 해- 선내활동>

-전일 항해합니다.
-선상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여러 가지 선상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수영장, 카지노,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극장 등)선상에서 즐기십니다.

제 3 일 <KING'S WHARF 버뮤다>

8:00am 도착 4:00pm 출항
- 버뮤다는 미국 해안에서 약 600마일 떨어진 북대서양에 위치한 국가이다.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사람이 사는 섬은 20여개에 불과하다. KING'S WHARF에서 내려 근처에 있는 버뮤다의 수도 해밀턴 관광을 즐길수 있다
-KING'S WHARF 도착, 옵션관광 또는 개인 관광

제 4 일 <항 해- 선내활동>

-전일 항해합니다.
-선상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여러 가지 선상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수영장, 카지노,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극장 등)선상에서 즐기십니다.

제 5 일 뉴욕 항

8:00am 도착
-롱비치 선착장 도착

크루즈 여행신청서

C R U I S E
R E S E R V A T I O N
A P P L I C A T I O N

신청자	성명(한글)	영문이름(English)	생년월일
연락처	Address		
	Cell		
신청객비종류	발코니(Balcony)	창문(Window)	인사이드(Inside)
DEPOSIT	예약금 \$	(잔액은 출발 91일 전까지 완납해야합니다)	
금액(Total Amount)	납부(Payment)	잔액(Balance)	
신청인	_____ 는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기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서명하여 확인합니다.		
신청인(서명)	_____ / _____ / 2020		

서울대미주동창회 |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a.org

www.snuuaa.org

제29차 평의원회의

버뮤다 크루즈

서울대 미주동창회

BERMUDA CRUISE

에메랄드 빛 물길 가르며 피어 오르는 소통, 화합, 비전

6/25/2020 (목)~6.29 (월) - 4박 5일

/ 여행일정 /		
Day 1	Thu New York City	Depart 4:00 PM
Day 2	Cruising / 세미나, 평의원회의	
Day 3	King's Wharf / Arrive 8:00 AM	Depart 4:00 PM
Day 4	Cruising / 세미나, 평의원회의	
Day 5	New York City	

*추가등록 2020년 3월25일

선착순 50명

\$200

지원

각 지부 평의원회인
동문님께서는 선착순 50분께
미주동창회에서 200불이
지원됩니다.

/ 여행비용 /	
인사이드	\$ 999 (Tax + 함만세 포함) 1인
오션뷰	\$ 1,099 (Tax + 함만세 포함) 1인
발코니	\$ 1,349 (Tax + 함만세 포함) 1인

참여 문의: 백옥자 818-395-1967(okjapaik@gmail.com)
동창회 718-463-3131(petershinesq@gmail.com)
피터김 213-388-4000(peterk@usajutour.com)

◆ 예약때 필요한것

여권 정보 영문 성함(ID 성함과 동일) 생년월일 여권 번호 여권 발급일 인기일(신청서 참조)

◆ 크루즈타실때 필요한것

시민권자: 여권 영주권자: 여권 영주권 한국에서 오신분들: 여권 ESTA 사본, 전자항공권사본

*항공료 및 공항에서 승선까지비용은 별도입니다.
*Group 이라 최종 결정을 신중히하시고 취소가안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회백 (의대 55)

/ 오피니언 /

Dutch Treat

더치페이에 대한 '단상'



©2014 Scott Hilburn/Distributed by Universal Uclick

식당에 가서 회식하고는 서로 자기가 내겠다고 싸우는 우리로서는 이 "Dutch Treat"란 문화는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도 이 문화를 따르자고 누가 한다면 "무슨 얼빠진 소리냐. 그건 웅충한 화란놈들이나 하는 짓이지 아량이 큰 우리가 할 것 이야?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아!"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식대를 서로 내겠다고 싸우는 우리의 전통(?)이 과연 건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내가 대학교 다닐때에 경험한 일이다. 이렇게 금전에 욕심이 없고(?) 서로 동료들의 식비를 자기가 내겠다고 경쟁하는 우리들이 공동으로 하는 일에 돈을 걷을때엔 사정이 달라진다. 예를들어 어떤 행사(수학여행 같은)에 갈때 얼마씩을 낼건가 할때는 한푼 두푼을 가지고 격론을 벌인다. 의견이 분분해 회의 진행이되지 않는 것을 보고한다. 즉 이런 공동행사에는 우리도 철저히 "Dutch Treat"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 행동의 원동력을 크게 둘로 나누어 하나는 생존을 위한 행동, 영어로 "Will to Live"와 권력을 차지하려는 "Will to Power"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동물도 둘째 요소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지만 "Will to Power"는 인간에게 심하다. 배불리 먹는 것 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남보다 우위에 서야 만족한다.

불란서 혁명의 기치인 자유, 평등, 박애 세 가지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평등이다. 이 평등없는 자유도 헛것이고 박애도 공영 불이다. 그런데 이 "Will to Power"는 평등(Egalite)과 상치된다. 이 때문에 인간은 모든면에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요새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때는 가령 젊은 남자가 데이트로 식당에 갔을때는 으레히 남자가 "내가 내것"이 당연한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스웨덴 여자들은 "Lady First"하고 남자가 양보하면 "내가 그렇게 약하게 보여?"하고 싫어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식대를 자기가 내겠다는 남자에게는 "내가 그렇게 가난하게 보여?"하고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겠다. 즉 이러한 사소한 일에도 "Will to Power"가 작용한다. 아량을 "배운" 사람의 지위는 상승하고 아량을 받는 사람의 지위는 하강한다.

소수의 기부나 정부지원 의존하는 단체 갈등은 필연적 회원 개개인의 동등한 부담이 갈등 해결의 해법될 수 'equal power'는 'equal pay'에서만 가능

식대를 가지고 싸우는 이유는 이것이다. 내가 우위에 서야만 되겠다는 싸움이고 내가 네 아래에 들어갈수는 없다는 선언이다. 공동으로 내는 돈은 내 지위의 고하를 정하는데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내겠다는 싸움은 있을수 없고 적게 내겠다는 싸움이 있을 뿐이다.

흔히 세상에 "공짜는 없다", "No Free Lunch"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고 산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공짜"는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고 있고 그것을 지불하는 사람은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반사 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엄밀히 말해 이타주의, "Altruism"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philanthropist)가 "그 사람 참 훌륭해"하는 소리 들을때 그는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공짜로 주는게 아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중 하나로 Mike Bloomberg 를 들수있다. 나는 그를 존경할 사람중의 하나로 여긴다. 뉴욕시장을

무보수로 12년이나 봉사했고 자선사업도 많이 했다. 내 기억으로는 그가 Johns Hopkins 대학에 1.7billion을 donation 한것으로 알고있고 지금은 미국을 위해 일해보겠다고 대통령 선거운동에 자기 재산 몇백 million을 아끼지 않고 내던지고 있다. 나는 그의 의도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것 자체가 평등(Equality)에 배치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기돈을 써가면서 하는 그의 선거운동에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평등하기 위해서는 힘이 평등해야하고 힘이 평등하려면 소수가 아닌, 더구나 한 개인이 아닌, 다수가 그의 선거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수 많은 "교회 싸움", "한인회 싸움", "무슨 무슨 회 싸움" 들을 본다.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일하겠다는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단체들이 대개 소수의 "기부"나 정부의 지원하에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결과로 power의 층이 생기고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다들 자기가 부당하게 낮은 층 대접을 받고 있다고 불평하게 된다. 이런

일이 시정될려면 층이 없어져야하고 층이 없어질려면 비용을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 즉 "equal power"는 "equal pay"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야만 "power struggle"도 없어질수 있다.

물론 이것은 이상이다. 우리는 이상이 아닌 현실에 살고 있고 우리는 항상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산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약간이라도 현실을 초월해 조금이라도 이상을 향해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특히 이나라의 지도급이라고 자처하는 서울대 동창들은? 그러니 우리도 'Dutch Treat' 또는 "Going Dutch" 를 시도해보자. 전 동창들이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첫걸음으로 해서. 2020년 2월 8일

이 글을 쓰고 난후 두가지 일이 일어났다. 하나는 가생중이 아카데미 상에서 작품상을 포함 4개 오스카 상을 탄 일이 일어났다. 내 생전에는 말할것도 없고 100년, 500년 후에도 우리가 Hollywood를 따라갈수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던 나였다.

너무 뜻밖인 일인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애국심이 치솟았을것이다. 이 기쁨을 나누고자 신용남 회장에게 전화하고 이 글을 회보에 내달라고 하자 회장님이 동창회 회비 납부자가 적어 곤란을 겪고 있어 동창에게 호소를 할려는 참이었는데 내가 대신해 줬다는 것이다.

이 기회에 애국심에 겹쳐 애교심도 발휘해 보는게 어떨까. 나는 이곳에 있는 Jewish Center에 거의 매일 십년 이상 Fitness Center에 나가는 연유로 그들의 공동생활을 관찰할 기회가 많았다. 그들의 단결력은 대단하다. 그리고 이 단결력은 그들 단체에 바치는 금액으로 나타낸다. 어마어마하다. 그 중심에는 이들의 종교, 유대교가 있고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 단결면에서 우리는 그들만 못하다. 그러나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좋은조건이 있다.

유대교안 중에는 흑인도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뭉치자. 그 힘을 회비로 보여주자.

Dutch Treat를 낮추게 볼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면을 본받자. 그리고 우리도 실천해 보자.

2020년 2월 13일



박재은 (의대 63)

/ 미술 이야기 /

미술 산책 (II)

내가 60년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재학 시절, palette에 몽게진 색채조각들로 만들어진 추상적인 화면에 심취해 그것을 모방하려 심취했었다. 그런데 요즘 이곳 미술 잡지, Art News, American Art 등을 뒤적이다 이곳 60년대 화가들이 벌써 palette에 그냥 sign을 하던지, palette에 몽게진 화면을 그대로 베낀 작품을 전시한 Pace Gallery 등을 소개한 기사를 봤다.

내가 이곳 미술학교 재학 시절, 한 선생님이 내가 쓰고 있는 palette를 보자고 하셨다(can I see your palette?) 그 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palette를 보면, 그 작가가 현재 구사하고 있는 색채 구사술을 보게 된다. 그 작가가 Palette에 짜놓은 색채들을 어떻게 혼합하여 정확한 색채를 만들어 내는가를 볼 수있기도 하고, 흥건한 색채들이 섞여 이루어낸 기적 같은 색채의 chemistry로 된 exciting 한 화면을 볼수 있다. 마치 Kandinsky의 화면, hofman의 화면, Twombly의 화면을 보는 것 같은 exciting 한 화면을 보게된다.

Kandinsky가 자기 화실에서 canvas와 씨름하다가 지쳐 잠깐 머리를 식히려려고 산보를 하고 화실에 돌아와 보니 놀랄 만

한 걸작품이 그가 씨름했던 canvas가 있던 easel에 걸려있어 기뻐 환희하여 가까이 가 보니, 그 걸작품은 바로 자기가 산보를 나가기전에 그토록 고생하며 씨름했던 그림이 거꾸로 놓여 있어 그토록 위대한 걸작품으로 보였다는 사실을 알고 "야! 음악이 순수한 음악 언어인 음으로 이루어지듯, 그림도 구차하고 쓸데없는 설명이 없는 순수한 회화 언어인, 색채, 공간, 선 으로만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episode가 있다.

1920년대, Munchen에서 kandinsky 등 청기사(Blaue Reider) 들이 발견한 이 회화 이론은, 1,2차 세계대전을 피해 이곳 NewYork에 정착한 School of NewYork 화파, Hans Hoffman등에 의해 더욱 만발하게 되었다. hofman의 작품은 tone이 다른 색채의 붓 touch들을 밀에 깔린 다른 tone의 색채의 붓 touch 위에 만들어, 붓 touch들이 놓인 위치를 달리해서 다른 공간을 창조해 낸 작품들이다.

이 공간 개념은 Picasso등 입체파 들이 알아낸 회화 요소로서의 공간 개념인데, Picasso는 Cezane의 넓적 넓적한 붓 touch를 더욱 대담하게 단순화해서 나무, 사람, 풍경 등 알아볼수 있는 형태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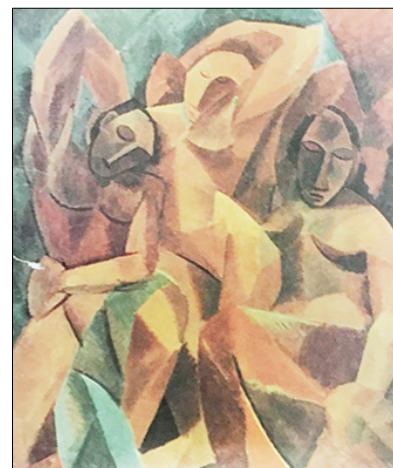
볼 수 있는 초기 분석적 입체파(analytic cubism)를 거쳐, 더욱 대담하게 단순화해 공간만 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입체파(synthetic cubism)를 이루게됐다.

Hegel은 역사를 공부할 것을 강조했다. 역사를 아는 것은 마치 어느 목적 지에 차를 몰고 가는데, 가는 길의 지도를 정확히 알고 가야 쉽게 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몹시 헤매며 고생하던가, 끝내는 그 목적 지에 도착 못함과 같이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도, 그 분야가 발전 해 온 역사를 알아야 새로운 창조를 할 수있다.

미술사의 발전의 역사는 technology의 역사와 같다.100년 전 비행기가 발명됐을 때는 100미터까지 밖에 날지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들이 쳐다 보는 하늘에 뜬 달까지 사람이 다녀 오고, 수 십년 걸려 걸어서 도착 할 도착지를 한 두 시간에 다녀올 수 있고, 14시간 이내에 지구 저쪽 한 국에 도착할 수 있다. 20-30여년전 portable 전화가 세상에 나왔을때 신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Cell Phone을 소유하고 있고 1초 만에 편지와 사진을 거리에 상관없이 어디에도 보낼수있는 온갖 편리함 속에 살고 있다.

나는 요즘 학생들에게, 내가 60년대에 어렴풋이 얻었던 영감의 연장으로 2000년부터 시작한 기법을 가르치고있다. 물론 극히 중요한 기초인 차고 따뜻한 색채 구사술, 음악에서 정확한 음정처럼 회화 언어인 색채의 정확한 사용법, 화면을 만들 때 가장 튼튼한 구성인 입체파의 공간을 만드는 법과 함께 모든 예술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표적인 요소인 흘러 기도 하고 튀기도 하는 기법, 즉 1950-60년대, Pollock, De-Kooning 등 AmericanExpressionist들이, 서양 미술사의 발전상의 기법인 Cubism, Expressionism의 기법에 동양의 예술 철학인 기운 생동을 가미한 기법인 Abstract Expressionism의 기법인 흘러기도하고, 튀기도 하는 기법을 가미해 그림을 만드는 기법을 가르치고있는데, 학생들이 공모전에 상을 타는 등 의외로 미술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내가 믿고 있는 생각이 인정 받아 몹시 흐뭇하다.

지금 Twombly 등 표현적인 작가(Expressionist)들은 흥건한 물감의 범벅이 무자비하게 흘러내리며 각 색채가 아름답게 혼합 되어 화면을 만드는 강렬하고 표현 적인 기법으로 동양의 선의 사상같은 작품들을 만들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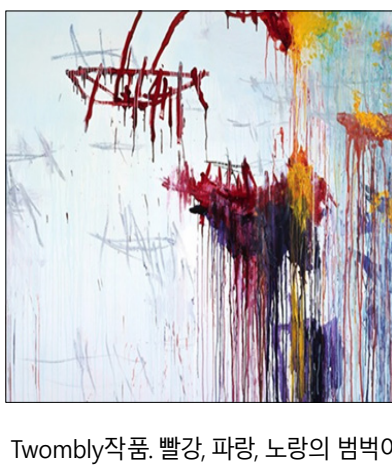
형태가보이는 초기입체파



입체파 그림



Christie에 전시되었던 pallet painting



Twombly작품. 빨강, 파랑, 노랑의 범벅이 무자비하게 흘러내리며 아름답게 섞이는 강렬한 표현적인 화면.

원고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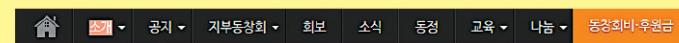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십시오.

**동창회비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 snuaa.org —
서울대미주동창회 웹사이트에서
회비납부 및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후원방법

1.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웹사이트 snuaa.org에 접속하여 "동창회비 후원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동창회비 및 후원금 페이지에서 노란색 Donate 버튼을 눌러서 PayPal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동창회비 및 후원금을 보내는 방법

Option 1. 온라인 납부 (동창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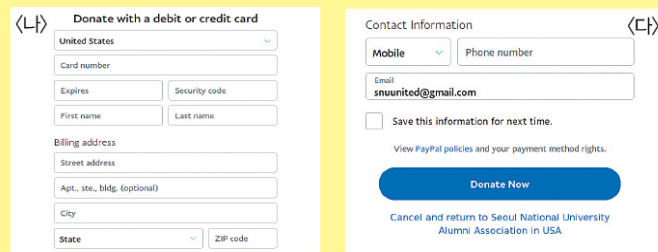


- 위의 "Donate" 버튼을 누르면 결제 웹사이트(PayPal)로 이동합니다.
- 결제 웹사이트에서 \$75, \$150, \$200 버튼 또는 원하는 후원금 액수를 입력합니다.
- 신용 카드로 결제하려면 "Donate with a Debit or Credit Card"를 눌러주세요.

3. 서울대 로고가 있는 PayPal 화면이 나오면
가) 동창회비 또는 후원금 액수를 선택한다. \$75, \$150, \$200 중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후원 액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Write a note"란에 이름, 출신 단과대, 입학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내역을 적습니다. (사진 위)

나) Credit 또는 debit 카드의 내용을 기입하고, billing address 를 적습니다. 동창회내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선택 사항을 표시합니다.

다) 맨 아래에 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Donate Now"를 누르면 후원이 됩니다.



4. 그 다음 후원액수가 잘 보내졌다고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5. 몇 초 후에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수표를 미주동창회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

- 후원하는 수표를 보내실 때 별도의 종이로 동문님의 성함, 출신단과대, 입학 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항목을 적어주시시오.
- 수표의 수취인(payable to)은 SNUAA-USA 입니다.
- 동창회 사무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후원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 718-463-3131 또는 이메일 finance@snuaa.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월 후원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명국(인문 81)	고중성(사범 75)	김진수(의대 60)	허선행(의대 58)	진병학(의대 57)	임종식(의대 51)
유영은(사범 57)	한성수(의대 54)	이운순(의대 52)	권철수(의대 70)		

중신 이사비 (\$3,000 이상 / 89명)

(G) 골드 이사 오인석 (법대 58) 윤상래 (수의 62)	이세열 (사대 57) 이중도 (공대 66) 이청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윤정욱 (약대 50)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 72) 제명해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한귀희 (미대 68) * 한홍택 (공대 60) 한효준 (공대 58)	뉴욕 김광호 (문리 62) 신용남 (농대 70) 오인석 (법대 58) (G) 이기영 (농대 70) 이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홍지복 (간호 70)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	필라델피아 서중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욱 (수의 68)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중신 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 \$6,000 이상 [카네기 음악회 순수익금] (6/22/19) \$6,637.55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김경숙 (간호 68)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 63) 김재영 (농대 62) 노명호 (공대 61) 노재성 (법대 58)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하섭 (약대 61) 오재인 (지대 33) 오홍조 (지대 56) 이병준 (상대 55)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G) 윤선홍 (의대 64) 정선주 (간호 68)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류재홍 (법대 60) 민홍기 (문리 61)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워싱턴주 이희백 (의대 55)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심상규(상대 63)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오스틴 김종권 (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조지아 주중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전회장단 이월금 (6/23) 30,000 (10/31) 27,365.02	박원준 (공대 53) 300 권철수 (의대 70) 100 오석일 (의대 64) 100	뉴욕지역 동창회 2,000 뉴욕지역 골든클럽 2,000 이만택 (미주재단) 4,500 강에드 (사대 60) 500 곽선석 (공대 61) 300 권문용 (미대 61) 200 김광호 (문리 62) 1,000 김승호 (공대 72) 2,000 김중용 (사대 53) 300 김해암 (의대 52) 1,000 노명호 (공대 61) 1,000 노용면 (의대 48) 100 민준기 (공대 59) 300 박영철 (농대 64) 2,000 박준수 (문리 48) 1,200 박종수 (수의 58) 1,000 박희병 (지대 63) 200 백승원 (의대 73) 1,500 석창호 (의대 66) 400 김정철 (의대 57) 200 성기호 (사대 57) 200 손재욱 (가정 77) 500 송용길 (대원 69) 500 송학린 (법대 59) 650 신용남 (농대 70) 2,000 연봉원 (문리 61) 300 윤상래 (수의 62) 1,000 윤은상 (상대 66) 80 이병준 (상대 55) 1,000 이상무 (의대 62) 100 이수호 (보건 69) 200 이용락 (공대 48) 650 이준행 (공대 48) 1,000 이중무 (의대 69) 500 이정호 (의대 60) 200 조남천 (사대 59) 60 조달훈 (사대 66) 500 조상근 (법대 69) 1,000 최경석 (사대 80) 650 최수용 (상대 55) 500 최철용 (농대 57) 5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형무 (법대 69) 200 추재욱 (의대 57) 1,000 한경수 (문리 57) 300 한귀희 (미대 68) 1,400 한영수 (의대 61) 200 홍중만 (공대 64) 300 홍지복 (간호 70) 500 DOUBLE TREE (최용렬) 500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500 문성인 (공대 88) 50 차재호 (농대 84) 50	남가주 노명호 (공대 61) 1,000 박종수 (수의대 58) 1,000 김정희 (음대 56) 500 이창신 (법대 57) 500 정재훈 (공대 64) 370 이병식 (공대 61) 200 임춘수 (의대 57) 200 백옥자 (음대 71) 200 유재환 (상대 67) 200 박민식 (수의대 65) 200 김영순 (음대 59) 200 김동석 (음대 64) 200 최용완 (공대 57) 200 양승문 (공대 65) 200 신동호 (수의대 76) 150 송명국(인문 81) 100 위중민 (공대 64) 100	홍정일 (약대 57) 200 이영우/김동희 200 (문리 66)/(공대 66) 김성범 (상대 50) 200	워싱턴 DC 권철수 (의대 70) 200 서윤석 (의대 62) 200 이영목 (공대 59) 200 이서구 (문리 61) 200	워싱턴 주 정람수(의대 60) 25 정경근 (농대 59)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정 77) 500 조정현 (수의 58) 200 이만택 (의대 52) 200 전무식 (수의 61) 200 지흥민 (수의대 61) 200 주기욱 (수의대 68) 200 조정현 (수의 58) 200 진병학 (의대 57) 100 정태광 (공대 74) 100	플로리다 김종권 (의대 63) 200 오석일 (의대 64) 200 한성수 (의대 54) 50	커네티컷 김기훈 (상대 52) 200	휴스턴 진기주 (상대 60) 500
업소록 광고비 강신용 (사대 73) 240 이경희 (인문 83) 240 정세근 (자연 82) 240 강호석 (상대 81) 240 백승원 (의대 73) 240 신동구 (수의 76) 240 이경림 (상대 64) 240 이준영 (지대 74) 240 이중호 (간호 69) 240 정재훈 (공대 64) 480 김원철 (농대 70) 240 염동해 (농대 74) 240 김원탁 (공대 65) 240 김일영 (약대 61) 480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2019/7/1~2020/6/30) 장학금 이용락 (공대 48) 500 정진수 (공대 56) 425 오인환 (문리 63) 200 임필순 (의대 54) 100 이원섭 (농대 77) 100 황현상 (의대 55) 100 문성인 (공대 88) 100 이규만 (문리 61) 25 조형원 500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이재진 (문리 85) 100	특별후원금 지부 분담금 (2019/7/1~2020/6/30) 워싱턴 D.C.(1/17/20) 2,000 남가주 3,000	특별후원금 28차 평의회의 후원금 서울 동동창회 3,000 김동희 (공대 66) 100 박평일 (농대 69) 200 송용길 (신문 69) 150 유성은 (의대 88) 1,300 유시영 (문리 68) 300 윤봉수 (간호 69) 100 한태진 (의대 58) 500	일반후원금 노명호 (공대 61) 1,000 박종수 (수의대 58) 1,000 김정희 (음대 56) 500 이창신 (법대 57) 500 정재훈 (공대 64) 370 이병식 (공대 61) 200 임춘수 (의대 57) 200 백옥자 (음대 71) 200 유재환 (상대 67) 200 박민식 (수의대 65) 200 김영순 (음대 59) 200 김동석 (음대 64) 200 최용완 (공대 57) 200 양승문 (공대 65) 200 신동호 (수의대 76) 150 송명국(인문 81) 100 위중민 (공대 64) 100	뉴욕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람 (상대 61) 1,000 곽승용 (의대 65) 500 강 에드워드(사대 60) 400 조명애 (간호 47) 375 이운순 (의대 52) 200 유영은 (사범 57) 200 허선행 (의대 58) 200 곽선석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곽선석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이정희 (사대 54) 200 허병렬 (사대 42) 100 이상원 25 민준기(공대 59) 25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의대 62) 500 김광수 (문리 77) 200 김정환 (공대 52) 200	오리노이 조형원 (약대 50) 500			

동창회비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 표: 2차 회기까지 내신 분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Table listing donors and their amounts for the 2019-2020 term. Includes columns for donor name, amount, and a grid of state abbreviations (e.g., CA, NY, TX, FL, etc.).

동창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보내실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payable to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org

Table listing donors and their amounts for the 2021 term. Includes columns for donor name, amount, and a grid of state abbreviations (e.g., CA, NY, TX, FL, etc.).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Table with 4 columns: Donation Type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Amount, and Description. Includes checkboxes for different contribution levels.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Email: news@snuu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orm for donor information including fields for name (한글/영문), address, phone number, and department.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공인회계사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ess, CA 90630
www.taycoeng.com

Leedco Engineers, Inc.
이종도 (공대 66)
T: 626-448-7870 / F: 626-448-3955
leedco@aol.com
3870 Baldwin Ave., El Monte, CA 91731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c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외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광고주를 모십니다.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약국
CareMax Pharmacy
유창호 (약대 74)
C: 909-229-7777
California Korean-American Pharmacists Asso.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나성 약국
임낙균 (약대 64)
T: 213-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외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외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외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외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Mirae Asset Wealth Mgm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 213-262-3805 / M: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기타
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
박양중 (문리대 61)
T: 213-380-2775
3475 W. 8th St., #100, LA, CA 90005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북가주 CA
정보 / 서비스
두리하나 결혼 정보
정지선 (상대 58)
T: 510-224-0760 / 1durihana@gmail.com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 # UL-2, Flushing, NY 11358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용 비뇨기과
윤세용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외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운송 / 원자재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 718-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워싱턴 DC MD·VA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oak.com
의료 /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 301-220-2828 / 301-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ID.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식품 /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광고주를 모십니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흥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동 . 창 . 회 . 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종수 (수), 주중광 (약)
차기회장: 노영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서리):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광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한경수 (문),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연봉원 (문) 최한용 (농), 송용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허유선 (가),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중 (법), 연봉원 (문),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목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언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종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욱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민일기 (약대 69)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Feb-Jan
	차기회장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준원 (공대 77)	408-220-4260 joonwi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록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지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유재호 (공대 90)	469-387-7922 blue9071@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Jan-Dec
	차기회장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Jan-Dec
	차기회장		bryanchon@gmail.com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평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이명자 (간호 74)	drmiale@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이영진 (공대 76)	404-579-8282 youngjinlee9999@gmail.com	
	차기회장	김재호 (공대 80)	404-372-2621 jhros@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jcac461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최희덕(사대 72)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Sep-Aug
	차기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통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권오을 (상대 56)		Jan-Dec
	부회장		y.kwon@griffith.edu.au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5대 신응남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뉴욕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하겠습니다!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결혼, 답을 듀오

결혼까지 가도 될까?

www.duosa.net since 1999 듀오 USA

LA 213-383-2525 NY 201-947-2525



Red Wing, Minnesota, USA
 Developer: IPS Solar
 Engineering: EVS, Inc.

SOLAR DEVELOPMENT

태양광사업에 관심있으시나요?

- Commercial & Industrial Buildings 에 태양광 설치
- Green & Brown Fields 에 태양광 설치
- 태양광 사업에 투자
- 태양광분야의 전문가 모집 (전기, 기계, 토목, 구조 분야)



미국에서 앞서가고있는 태양광기업 (EVS, Inc) 에 연락주세요.



김권식대표(공대 61)
 dkim@evs-eng.com
 (612) 961-6878

www.evs-eng.com